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2022년 용마의 밤 행사에서 동문들이 '인간열차'를 만들어 즐거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 <사진=성찬기(41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사무국장>

4년 만의 대규모 행사...430여 동문 참석, 화합과 단결 합창 동창회관 건립 주역 박종찬(25회) 고문 제17회 용마대상 수상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장 등 7명 공로패김미정 경남중 교장 감사패 수상

창회장이 금 1량의 기념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25회 동기회를 대표하여 옥 동창회관이 꽃다발을 건넸다. 박 고문은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사 2면에 넘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체제 2년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2022년 용마의 밤 행사는 참석자들을 잠시 청춘의 시간대로, 또 동심의 세계로 인도한 코로나19 극복 기념 축제 같았다.<관련기사 2, 3, 4, 5면 게재>

지난 12월 8일 오후 서면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날 1부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시상식, 인사말과 축사 등 진행 내용상 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용마코스 공연 무대도 모범생의 정석플레이 같아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2부 공연에서 말끔히 씻었다. 초대가수들과 함께 참석 동문과 내빈들이 무대 위 아래서 춤을 추는가 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 ‘인간열차’가 행사 장내를 누비며 축제의 클라이막스를 달렸다. 사회자 김경진(44회) 동문은 동창회 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흥분했다. ‘인간열차’는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듯, 한마음 잔치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날 식전행사로 나나엔젤스의 멜

로디언&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1부 행사는 동창회기 및 교기 입상에 이은 광두희(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국민의례 후 참석자 소개가 진행됐다. 김 총동창회장, 송규정(16회) 상임고문, 박종찬(25회) 고문, 광두희(24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동창회관장, 강부덕(20회) 노상우 박극제(이상 24회) 박세철(25회) 자문위원,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등 총동창회 인사와 경남고 백영선 교장과 박근태(39회) 학교운영위원장, 경남중 김미정 교장과 한미숙 학교운영위원장 등 내빈이 소개되었다. 이어 5회부터 67회까지 기수별로 참석자 인사가 있었다. 집행위부회장, 일반위부회장, 운영위부회장, 지구별·직능별 참석자 등이 일일이 거명됐다. 이날 최고참 기수로 5회 진도영 동문이 참석, 환호를 받았다.

올해 각종 총동창회장기(배) 대회 결과 발표에 이어 용마대상 시상이 거행됐다. 수상자는 박종찬 총동창회 고

제17회 용마대상 수상 박종찬(25회) 고문 “가문의 영광...십시일반 문화 형성”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박종찬 고문에게 제17회 용마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종찬(25회·사진) 총동창회 고문이 지난 12월 8일 개최된 2022년 용마의 밤 행사에서 제17회 용마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제16회 용마대상(고 남진현 총동창회관장) 시상 이후 2년 만이다.<인터뷰 6면 게재>

이 자리서 박 고문은 수상 소감을 “너무 귀한 상을 받아 송구스럽다. 동창회관 개관에 일조한 것이 수상 이유인 것 같다. 회관 개관까지 많은 동문이 십시일반 하였다. 동창회에

십시일반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마대상 수상자 선정은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이다. 이 자리서 박 고문 외 몇몇 동문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박 고문이 거둔 업적-총동창회관 건립·경미회 조직 결성 및 활성화 등-이 가시적으로 뚜렷하고 워낙 커서 만장일치로 가 결정되었다.

모교80년사 학교편 완성본 발간 “우린 해냈다”

역사의 장에 큰 획 긋는 쾌거...내달 초 배포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모교사 편찬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편집위원들의 제작 및 교열작업이 지난 11월 말 완료 되어 12월 12일 서울의 금성기획에서 발간작업을 개시했다. 인쇄, 제본 등의 작업시간을 고려, 배포는 새해 1월 4, 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모교80년사는 학교사편이다. 학교사편은 총동창회 편찬위원회가 맡고, 동창회사는 재경편찬위원회가 맡기로 했었다. 동창회사는 조만간 발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학교사 완성본 발간은 올해 4월 30일 모교 개

교80주년 기념식에서 가제본으로 봉정식을 가진 지 7개월여 만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치고 추가하고, 고치고 삭제하고, 또 고치고 확인하는 지난한 수정작업이 계속되었다. ‘옥동자’를 남기 위한 긴 산고(産苦)였다.

모교사 편찬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시도와 좌절을 거듭해오다 이제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총동창회 역사의 장(章)에 큰 획을 긋는 영광스러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총동창회관 내 편찬위원회 현판식을 내건 지 2년 4개월 만에 거둔 쾌거이다. 총동창회의 숙원

이었던 회관 건립에 이은 모교사 편찬 사업이 완성을 본 것은 경남중고인의 역량과 힘이 그만큼 결집되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우리의 ‘저력’이다.

김형석(16회)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박종기(28회) 서강태 정해석(이상 30회) 등 7명의 편집위원들과 박종찬(25회) 편찬위원장의 맘과 열정, 봉사과 헌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모교 80년사 학교편.

김대욱 총동창회장·박종찬 고문 “1천만원씩 협찬”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용마의 밤 행사 일정 논의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11월 2일 오후 서면 월강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용마의 밤 행사 계획안 논의가 주요 의제였다. 이번 행사는 약식으로는 2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는 4년 만에 치르는 용마대추제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과, 집행위부회장단에서 박종호(31회) 김법영(33회) 박진용(36회) 권두성 정재영(이상 38회) 전삼록 최영준(이상 41회) 동문이 참석했다. 이 밖에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인 예동해(32회) 동문이 자리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용마의 밤 행사가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 하자. 주요 의제 결정 시에는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용마의 밤 행사 논의에 앞서 주요 행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용마의 밤 행사 계획안이 논의됐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사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내용 중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 △신세계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결과 (16강 1차전 패배, 본선 탈락)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성료 △26회, 46회 홈커밍데이 행사.

용마의 밤 행사는 잠정적으로 600명 참석 수준으로 규모를 정하고, 롯데호텔 측과 견적 내용을 협상기로 했다. 참석 인원은 추후 각 기수별 확인 후 확정 짓기로 했다.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중 등급 변동 동문에 대한 감사패도 증정기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대상자는 4명이다. △실버급(1천만원 이상)=이재원(12회·신규) 이양걸(41회·승급) 동문 △브론즈급=이병찬(23회·신규) 전민기(55회·신규) 동문.

이날 2022년 용마대상 후보동문 선정 논의에서 박 고문이 제17대 용마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면 기사 참조>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행사 일정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일정과 추후 보고된 내용 중 12월 10일 이후 행사를 소개한다. △용마산악회 남회 산행(12월 11일) △용마코스 정기공연(12월 13일)

△경미회 송년회(12월 15일) △36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12월 17일) △강서지구동창회 송년회(12월 20일) △중부산지구동창회 송년회(12월 21일) △덕경회 송년모임(12월 26일) △해운대지구동창회 송년모임(12월 29일) 등이다.

한편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과 박 고문이 이번 용마의 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행사준비 경비 마중물로 각각 1천만 원씩 협찬할 것을 약속했다.

총동창회는 용마의 밤 행사 참가비를 1인당 3만원으로 정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을 총 7천500만원으로 잡았다. 각 동기회를 비롯, 지구 및 지역동창회, 직능·동호단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협찬 내용은 행사 팸플릿 박스광고에 게재한다.

용마의 밤 참석자는 각 기별로 접수하여 사무국에 제출토록 했다. 총동창회 미가입 상태인 56회 이후 동문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무국에 참가신청을 받았다.

<기사 1면에서 받음>

공로패 시상에서 노상우 용마당구회 회장, 류명석(31회) 개교80주년기념행사 집행위원장, 김법영(33회) 용마산악회 고문, 이동근(33회) 용마골프회 회장, 이윤조(33회) 덕형리그 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이 수상했다.

이어 경남중 김미정 교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시기부 명칭 부여자 중 등급이 올랐거나, 이름을 올린 동문 4명이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실버급 고 이재원(12회) 이양걸(41회), 브론즈급 이병찬(23회) 전민기(55회) 동문이다. 이날 이양걸 동문만 참석,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식 용마의 밤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총

동창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열린 동창회, 화합 동창회로 나아가면서 내실을 다져온 것을 체감한다. 모교사랑 기금 누적액이 10억원에 육박하고, 야구후원회의 재출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초 평준화세대 첫 총동창회장을 맞는다. 학력 자부심에서 우정과 화합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세대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백 경남고 교장은 올해 거둔 학교 성과를 말하고, 추진 중인 과제를 밝히면서 “후배 재학생들이 ‘자랑스런 경고인’의 미션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 과제는 학교 리모델링 사업,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 덕형관 3, 4층 역사관 활용, 과학관 건물명 짓기 등이다. 과학관 명칭과 관련, 총동창회

차원 논의를 요청했다.

김 경남중 교장은 “뿌리 깊은 전통으로 ‘명문중’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올해도 우수한 교육활동으로 연말까지 5개의 상 수상을 예상한다”면서 “학생 교육과 복지시설 확충 등에 대한 동창회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날 ‘용마의 밤’ 문구로 4행시를 펼치기도 했다.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이 축하의 인사를 했다.

축하건배에는 김 총동창회장, 송 상임 고문, 박 고문, 곽 자문위원장, 옥 동창회관장과 원로 기수의 진도영(5회), 강용대(11회), 배대결(13회) 동문이 참가했다. 송 상임고문이 “경남중·고 용마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고 건배사를 했다.

이어 용마코스스의 축하공연, 교가제창, 기념촬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만찬에 들어갔다.

2부 행사 사회를 방송인 김경진(44회) 전문MC가 맡았다. 초대가수 싱글 2명, 그룹 1팀이 출연했다. 공연 중 흥이 난 동문들과 참가 학부모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추었고, 이 와중에 사회자는 각종 협찬선물을 쏟아내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앵두걸스’ 공연 시 연출된 ‘기차놀이’는 이날 축제의 밤을 흥분케 만들었다. 열기를 식히면서 경품행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동아고, 동래고, 개성고 총창회서, 송 상임고문이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은 축전을 전해왔다.

200명 줄이은 ‘기차’, 엔데믹 기쁨도 없어 “달리고 달리고”

200명 ‘인간열차’에 환호

○...2022년 용마의 밤 행사는 ‘기차놀이’가 살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초대가수 앵두걸스의 뽕짝 노래에 맞추어 200명 가까이 되는 참가 동문과 내빈이 인간열차를 만들어 대형 테이블 45개가 놓여진 장내를 휘돌았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김미정 경남중 교장과 경남중 학부모운영위원장들 등 모두 화합과 단결의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장내를 돌면서 열차 참여 인원이 늘어나 수십m의 길이를 연출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뚫고 나와 엔데믹의 기쁨도 가세한 환희의 축제였다.



2022년 용마의 밤 행사장 전경.

교장선생님도 무대 올라 춤

○...축제 무드 고조에는 역시 ‘춤’이 최고였다. 만찬이 끝나고 2부 초대가수 공연에서 대만 출신의 ‘려화’가 노래를 시작하자 ‘춤의 달인’ 장기현(18회) 동문이 무대 앞으로 나와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어 가수 ‘당찬’이 설운도의 ‘상하이트위스트’를 부르자 무대 위 아래서 춤이 나왔다. 이육한(55회) 강지훈(56회) 동문은 신발을 들고 빙글빙글 돌리며 춤을 추었고, 김미정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도 무대에 올라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다. 장내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교장은 “학부모들은 동문 여러분들의 중학교 시절의 어머니”라며 함께 축제를 즐기자고 말했다.



용마의 밤 2부 행사에서 동문과 모교 학부모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사진=성찬기(41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사무국장>

또 삼행시...문답형으로 발전

○...김 교장은 이날 축사에서 ‘삼행시’의 여왕’답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날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았다. 객석과 함께하는 문답형 삼행시였다. 시제가 ‘용마의 밤’이었다.

‘용’-용마의 밤에 참석해 행복하십니까?(동문: “예”)
‘마’-마, 좀 크게 대답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동문: 크게 “예”)
‘의’-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행복하십니까?(동문: 크게 “예”)

용마대상 수상자 현황

순서	성명 (기수)	직책	연도
제1회	김근준 (1회)	전 경남학원 원장	1991
제2회	김영삼 (3회)	전 대통령	1992
제3회	정동식 (1회)	재경동창회 고문	1993
제4회	권오현 (1회)	전 부산일보 사장	1994
제5회	송두호 (3회)	전 국회의원	1995
제6회	이희문 (6회)	전 경남고 교장	1996
제7회	정상천 (4회)	전 국회의원-장관	1997
제8회	우명수 (5회)	전 부산시교육감	1998
제9회	김형석 (16회)	동방인쇄 부사장	2001
제10회	김경희 (9회)	(쥬용마공영 대표이사	2002
제11회	박종구 (5회)	삼구그룹 회장	2003
제12회	박재상 (22회)	(쥬천일고속 대표	2005
제13회	구본능 (21회)	희성그룹 회장	2009
제14회	안강태 (11회)	대선조선(쥬 대표이사	2012
제15회	김영기 (23회)	(쥬휴롬 회장	2017
제16회	남진현 (19회)	전 총동창회관장	2020
제17회	박종찬 (25회)	(쥬제이텍 회장	2022

‘밤’-밤늦게 동문들과 회포를 풀고 멋진 밤을 보냅니까?(동문: 크게 “예”)

새 단복 차려입고 신난 공연

○...용마코러스는 이날 30명의 단원이 무대에 올랐다. 김형수(31회) 단장, 조성빈(47회) 지휘자를 비롯, 단원들은 흰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차림에 검정 보타이(bow tie)로 산뜻하게 꾸몄다. 이날 단원들은 새로 맞춘 단복을 입고 첫 공연해 신이 더 났다. 이번 기회에 연미복까지 맞췄다고 한다. 제복은 자부심을 상징하는 만큼 12월 13일의 정기공연에 대한 더 큰 기대를 안겨줬다.

윤원욱 사무국장, 사회자 데뷔

○...이날 1부 사회자로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대형무대에선 데뷔적인 이날 윤 국장은 긴장한 탓에 경미한 실수도 있었지만, 상황을 잘 리드해 대체로 무

난했다는 평이다. 마음이 유순해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차분한 어조의 윤 국장이 시간안배에 ‘칼’ 같고 임기응변과 분위기 장악력을 갖춰야 하는 사회자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응원을 보낸 동문도 많았다.

태극기 게양 오류, 오점으로

○...이날 행사에서 태극기 게양 오류는 큰 오점이었다.

호텔측이 준비한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돼 있는 것을 행사 진행 1시간이 지났어야 바로 잡았다. 아무도 몰랐던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16회 한 원로동문이 발견, 집행부에 알려 시정조치되었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타성이 화(禍)를 부른 셈이다. 4년 만의 대규모 행사(2년 전은 미니 행사)라 ‘만전(萬全)의 경지’까지는 욕심이었다.

진행요원들의 봉사 큰 힘

○...이날 18명의 진행요원이 430명 참석 동문을 접대했다. 이들의 봉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본다.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김신욱 성찬기(이상 41회) 김영휘 오일남(이상 43회) 손창오 조청래(이상 45회) 서승진 양수성(이상 46회) 박보순(51회) 송승운(53회) 박기홍 이해민 최유성 허준 황시우(이상 55회) 김경모 이승민 홍대규(이상 56회).

용마의 밤 - 화보

개교 100주년 향한 화합의 축제...“경남중·고여, 영원하라!” 건배



용마의 밤 1부 행사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 수시기부명칭 부여자 중 등급이 오른 이양걸(41회) 동문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 용마의 밤에서 공로패 수상자들이 김대욱 총동창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성찬기(41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사무국장
홍대규(56회) 중부산지구동창회원



용마의 밤에서 총동창회장 등 8명의 동문이 나와 축배의 잔을 들어올렸다.



용마의 밤 참가자들이 '후라, 경고!'를 외치고 있다.



용마의 밤 행사참가자중 최고 원로 진도영(5회) 동문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용마코러스가 용마의 밤 축하 노래를 하고 있다.

무대 추억될 평준화세대와 그 이전 세대 간 융합과 결속을 노래



행사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든 기차놀이 모습.



용마의 밤 행사 모습들.



경품 추첨에서 박진용(36회) 동문이 협찬한 200만원 상당의 라식시술권에 당첨된 정현욱(32회) 동문(왼쪽)과 박명진(33회) 동문이 협찬한 해운대골프&리조트 숙박권(90명)에 당첨된 차갑성(26회) 동문.

〈2022 용마의 밤〉 협찬금 현황			
번호	성명	기수	금액
1	김대욱	29	10,000,000
2	박용덕	20	1,000,000
3	유재진	22	1,000,000
4	김영기	23	3,000,000
5	곽두희	24	500,000
6	노상우	24	500,000
7	박세철	25	500,000
8	박종찬	25	10,000,000
9	박상호	26	2,000,000
10	박중기	28	300,000
11	김갑태	29	300,000
12	김정암	29	500,000

번호	성명	기수	금액
13	최우철	30	1,000,000
14	박중호	31	1,000,000
15	이종휘	32	1,000,000
16	김법영	33	500,000
17	이진호	34	300,000
18	이충고	37	300,000
19	허부남	37	1,000,000
20	정재형	38	300,000
21	박근태	39	500,000
22	정순환	39	300,000
23	우영환	40	1,000,000
24	박동식	42	300,000
25	안병규	44	500,000

번호	성명	기수	금액
26	정신	47	500,000
27	김민철	52	500,000
28	46회 동기회		500,000
29	강서지구		200,000
30	거제지역		200,000
31	경미회		1,000,000
32	경아회		1,000,000
33	김해지역		300,000
34	남부산지구		200,000
35	덕경회		2,000,000
36	덕령리회		1,000,000
37	등대회		500,000
38	부산시 용마회		300,000

번호	성명	기수	금액
39	사하지구		500,000
40	야구후원회		1,000,000
41	용건회		500,000
42	용마골프회		1,000,000
43	용마당구회		500,000
44	용마산악회		500,000
45	용마테니스회		300,000
46	용마코러스		500,000
47	중부산지구		500,000
48	창원지역		500,000
49	해운대지구		200,000
50	K-청마회		300,000
합 계			52,100,000

〈2022 용마의 밤〉 협찬품 현황			
번호	성명	기수	내역
1	김영기	23	휴롬녹즙기 2대, 티마스터 3대
2	이상수	23	건강기능식품 25세트(160만원 상당)
3	박국제	24	고등어 선물세트 10세트(60만원 상당)
4	이종휘	32	프리미엄 피부비용 시술권(50만원 상당) 2매
5	김법영	33	김&정 해운대병원 척추건강 검진권(30만원 상당) 4매
6	박명진	33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숙박권(90명당-200만원 상당) 1매

번호	성명	기수	내역
7	박진용	36	라식시술권(200만원 상당) 1매
8	윤경준	36	성형시술권(30만원 상당) 3매
9	권두성	38	기념타올 200세트(400장-240만원 상당)
10	박정민	38	구급함 세트 3개
11	한민득	38	용마의밤 행사라벨 부착 소주 10박스(200병), 맥주 20박스(240병)
12	백기현	39	초량본가어묵 10세트(60만원 상당)
13	최영준	41	해동병원 MRI 촬영권 50만원 2매

번호	성명	기수	내역
14	정용중	42	이가한우 10만원 식사권 3매
15	김대영	43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장
16	볼스해운항공(주)	44	킹블랙티이거새우 메로구이세트(5만원) 10세트
17	최유탄	49	고급이류(10만원 상당) 10세트
18	김덕형	66	고급어묵 선물용 5세트
19	총동창회		후드티(5만원 상당) 30장, 이대호 싸인 야구배트(15만원 상당) 5자루, 싸인볼 40개

2022년 용마의 밤 참석자 명단 총 436명 (2022. 12. 8)

- 5회(1명) 진도영
- 11회(3명) 강용대 이재진 임상윤
- 13회(4명) 배대결 윤기갑 장영길 최태환
- 14회(3명) 김화옥 이강석 이광연
- 15회(1명) 하영수
- 16회(10명) 강중국 김무광 서고명 손승방 송규정 안국경 이경일 이종철 정영일 정우광
- 17회(3명) 김준연 박정훈 신정아
- 18회(8명) 김병수 김성수 김정태 박근태 오수명 이호국 장기현 하영일
- 19회(1명) 노덕현
- 20회(11명) 강부덕 강영환 김대원 김세준 김한원 노기태 류영덕 박병관 우철성 장상배 허규판
- 21회(8명) 김동우 김형동 김호성 박상주 이영상 임경범 정상인 정영천
- 22회(1명) 이용규
- 23회(5명) 김기열 박재호 신상희 이상수 전상대
- 24회(8명) 곽두희 김인구 노상우 박국제 안명수 유홍석 이상우 최동우
- 25회(24명) 구도근 김구화 김길수 김옥권 김중현 김진우 박광용 박세철 박종찬 송동준 신성한 안희석 양계현 여성조 옥동훈 윤태석 이상식 이상화 이인구 이태근 전상태 전섭태 조병욱 최재환
- 26회(11명) 권해국 김종우 김태용 박상호 왕정일
-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조만석 차갑성 최윤림
- 27회(1명) 이요섭
- 28회(9명) 구영소 김명보 박재훈 박중기 안상원 이관선 이원용 정인식 조광제
- 29회(12명) 김대욱 김정암 김종명 박광수 박봉구 박장철 서영학 안철홍 정길 차의수 허중 현응열
- 30회(5명) 김병기 김재철 우홍제 이원용 홍인기
- 31회(16명) 고영호 공종열 김중규 김판덕 김형수 류명석 문성일 박세환 박종건 박중호 안중수 오민일 이석우 정용식 조성근 최상규
- 32회(16명) 기영수 김상권 김태홍 김형국 박원근 변문성 예동해 이상훈 이웅길 이종휘 정용운 경현상 정현욱 한문진 황문찬 황원백
- 33회(11명) 김기산 김법영 김철 김춘복 류장근 백수현 송중현 이동근 이윤조 정아준 최웅남
- 34회(5명) 김현용 박철웅 손병걸 이용희 조시형
- 35회(10명) 권기범 김동일 김세정 박기영 박동렬 박창석 손수범 이창렬 전상건 정윤성
- 36회(19명) 김규선 김병조 김정현 김종오 김창일 김철원 맹경태 박진용 양호진 우한주 윤경준 이동희 이서호 임창섭 임창의 정병기 정윤희 최재혁 한형식
- 37회(11명) 강용하 김기덕 김중관 김진영 윤태환 이호진 임창근 천웅찬 최기영 탁낙준 허부남
- 38회(12명) 구동주 권두성 김경근 김원철 김태성김

- 태호 류인식 신동훈 심재민 오희진 정재형 조용철
- 39회(17명) 김규용 김병기 김윤홍 김정남 김종엽 남호찬 노성수 박근태 백기현 서은식 안승진 유숙정 윤원욱 이상학 이종욱 이종운 정순환
- 40회(8명) 김동근 배영진 우영환 이승배 이정삼 이창진 이태욱 임태영
- 41회(11명) 강훈 김동원 김신욱 김영철 김형찬 문상현 백창봉 성찬기 이양걸 전삼록 최영준
- 42회(6명) 강인호 김원주 김현오 성창욱 유경상 정홍준
- 43회(9명) 김대영 김대훈 김영휘 김종식 마성준 박상순 박형규 오일남 유법권
- 44회(19명) 강경호 김경진 김성준 김형준 김황 문형준 안병규 윤상훈 이승철 임정훈 전광열 정의석 정중윤 조영호 조진현 최현 최현덕 탁정환 한수성
- 45회(9명) 구자삼 김상수 김중현 박현승 손창오 조청래 조태성 최재근 황귀웅
- 46회(13명) 김백권 김희택 문정기 서승진 신정일 양수성 오동기 육한수 이동수 이성민 정수찬 최원석 하성용
- 47회(7명) 김성원 배준수 손호준 정민호 정신 정원 조성빈
- 48회(1명) 김춘호
- 49회(9명) 김민기 김성구 김진용 박재승 이성형 정일권 최유탄 최진영 홍민호
- 50회(8명) 구민수 김석훈 김재호 노재훈 박복열 백광선 이상준 최홍호
- 51회(7명) 구민석 박보순 서성호 신석진 이지모 정유석 최우영
- 52회(8명) 김민수 김민철 김지은 김현진 정상중 조용수 최형주 허근영
- 53회(6명) 김상욱 박성영 선재원 송승윤 우재준 하병오
- 54회(8명) 고지현 김영빈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임길환 정효영 조중완
- 55회(10명) 박기홍 안진영 이동규 이육한 이해민 이항림 장기현 최유성 허준 황시우
- 56회(11명) 강지훈 김경모 김선철 김정훈 류은재 이승민 이준희 장재환 천두만 최경수 홍대규
- 57회(1명) 안재영
- 58회(2명) 강평민 김현윤
- 59회(3명) 김성수 정현목 이희동
- 61회(2명) 김민하 장민규
- 62회(4명) 김재원 유동수 이상준 한민
- 63회(1명) 안주용
- 66회(1명) 김덕형
- 67회(1명) 전명재
- 69회(1명) 김동인
- 기타(24명) 경남고 백영선 교감, 조민형 교감 등 7명, 경남중 김미정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14명, 박소미 용마코러스 반주자 총동창회 사무국 직원 2명

‘제17회 용마대상 수상 및 모교 80년사 편찬 성공’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노력하는 후배에게 박수 쳐주는 선배 많아야”

“야구후원회 결성 강화·덕경회의 ‘공헌 실천’ 단체로 육성
자료 추적 어려움 딛고 1,500쪽 모교사 한권 완성 큰 보람”

2022년 용마대상 수상자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총동창회장 재임 시 거둔 성과는 너무 많다. 최대 성과 2가지만 꼽으라면, 동문 누구든 총동창회관 건립과 후배 기수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말한다. 퇴임 후에도 야구후원회 결성과 안착, 덕경회 재출범이란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뿐 아니다. 총동창회의 또 다른 숙원이었던 ‘모교 80년사 편찬’을 진두지휘하여 결과물을 지금 막 내놓았다. 박 고문은 스스로 “일 복(福)이 많다”고 했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고 주어진 일, 해야 하는 일에 최선 그 이상의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용마대상 수상과 모교8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17회 용마대상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6만8,000여 명의 동문 중에서 17번째로 수상한 용마대상은 0.02% 확률의 너무나 귀한 상입니다. 미답의 길을 개척한 추진력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내년 평준화기수의 첫 총동창회장 탄생을 앞두고 후배들이 선정해서 준 용마대상은 동창회의 새로운 안착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취임했던 2018년 이후 우리 동창회에 축적되어 온 내부에너지가 얼마 전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와 동창회에 무관심했던 동문들에게도 전달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열을 맛보는 활동을 만끽하는 동창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향후에도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봉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동문들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것이 있으신지요?

▲올해 초 재탄생한 야구후원회는 약 260명의 후원회원을 기반으로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우승과 함께 첫 해 자리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성공적인 출발의 배경에는 초대회장으로 재경과 연결고리가 가능한 22회 유재진 선배님이 추대된 것입니다. 연간 야구부 운영경비의 약 95% 정도를 자체 부담하는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우수한 중학야구선수들의 부모님들이 모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끄럼 없는 야구환경 조성에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될 수 있도록 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후원회 결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재출범한 덕경회는 제조와 무역업을 하는 약 60명의 중소기업CEO로 구성되었으며 제가 회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원 각자 성공적으로 사업활동을 도모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동창회의 앞날을 전망해 본다면?

▲짧게 대답하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제17회 용마대상을 수상한 박종찬 고문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생각합니다. 40회 이후 기수 동기회는 ‘경미회’와 ‘청마회’란 단체활동을 통해 상하좌우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동창회장을 배출하는 32회부터 39회까지는 각 기수별 단결력에 따라 동창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31회 이전 기수 동문들이 동창회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하는가에 따라 동창회의 동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선배가 많을수록 동창회의 발전은 당연합니다. 영원한 동창회를 위해 다함께 힘을 합칩시다.

-30년 전부터 시도해온 모교사 편찬 사업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년여 전 총동창회장 재직 시 결단을 내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1,500페이지 모교사 한권 완성의 보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7명의 편집위원들과 힘든 실행 끝에 12월 12일부터 인쇄 1주일, 제본 2주일

작업하면 내년 1월 첫 주에 발송이 됩니다. 약속한 대로 총원명부 구입자,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 및 후원광고자에게 무료로 발송됩니다. 4,700부를 발행합니다만 유관단체 기증분을 제하면 유료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년사 편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년의 세월을 되돌리는 것이라 모교 초창기 역사 자료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적부를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스토리텔링 편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모교80년사에 자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경남중과 경남고로 분리해서 편집하는 작업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행 일자를 지켜야 하는 문제로 나열식 자료가 되어 버린 점입니다. 100년사를 발행할 후배들이 그러한 분류작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경남중고의 탄생은 십시일반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부산 시내 첫 인문계 중학교인 부산제2공립중학교였으므로, 일본인만 다닌 부산제1공립중학교(부산중고의 전신)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는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사 제작 막판에 책 디자인 수정과 졸업생 명단 교열작업에 직접 참여해 눈이 상할 정도로 큰 고생을 했다는 후문이 나옵니다.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방대한 분량의 편집량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시대별로 나누어 편집을 분담했는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뒤늦게 발견된 오류를 고치는 작업을 기획사와 핑퐁으로 하다 보니 가제본을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되지 않아 막바지에 저와 29회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이 직접 개입해서 교열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은 글씨를 정해진 일정 내에서 훑어 내려가는 작업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용마대상 수상자로서, 또 동창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모교80년사 편찬의 주역으로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총동창회 밴드에서 보다시피 우리 동창회에 확산되고 있는 십시일반 기부 문화는 아마 타교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살기에 바쁜 젊은 기수의 동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남중고 특유의 동문애를 바탕으로 백지장도 함께 드는 마음이겠지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교풍은 면면히 이어질 것입니다. 후배들의 성공은 선배들의 기쁨이 됩니다. 직능과 동호회를 통해 종과 획으로 엮어진 동문회는 밴드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공감하고, 풋살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등 세분화된 동호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멋진 후배들을 그려봅니다. 멘토, 멘티가 가득한 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경남중·고인의 저력·명문 출신 확인 증언서”

최초의 역사 기록 성과... ‘허점’ 있어도 자부심 안겨줘

모교80년사 학교편 발간 의미와 과제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는 1942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중·고교에 존재했던 사실(fact)들을 엮은 역사책이다. 경남중·고에 재학했던 6만여 학생과 재직 교사, 학부모,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 지역사회 등이 지난 80년 동안 함께 엮어낸 소중한 역사의 기록물이다.

모교8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왜 이 책을 편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고 만다. 이번 모교사 편찬을 위한 자료 채집과정에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오래된 술한 자료들이 망실되고, 증언할 인물이 유명(幽明)을 달리한 사

레가 많았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마는 법이다.

그나마 개교 80주년에 모교사를 처음 발간하게 된 것은 쾌거로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동문의 의지와 동창회의 역량이 결집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에 50년사, 60년사, 70년사 발간이 기획단계에서 좌초되고 만 것을 회고할 때 오늘 경남중·고 동창회의 저력이 대단함을 증언하고 있다. 경남중·고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의 의미가 학교 역사에도 별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간에 있어서의 공로를 따지지 않을 수 없

다. 뭐니 해도 박종찬(25회) 편찬위원장의 공이 크다. 총동창회장 재임 시 80년 사편찬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 해두었고, 편집위원들을 독려하여 2년 4개월 만에 완성본을 만들어낸 결단과 추진력은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내용이다.

편집위원들의 봉사와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편집위원들의 평균 기수는 김형석(16회) 편집위원장을 제외하면 27회이다. 나이로 따지면 올해 71세이다. 고회를 넘긴 동문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료수집과 집필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편집위원 대부분 지난 2년여 동안의 헌신으로 득병(得病)한 상태이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척추이상 증세는 물론이고, 시력 저하도 감수해야 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도 한다. 지난 80년의 모교 역사를 읽다 보면, 찬란한 명문 출신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게 된다. 바로 현재를 살

아가는 동문 모두에게 선사하는 자부심이다. 미래를 열어갈 후배기수들에게는 무한한 긍지를 안겨주면서 미래를 창조해나갈 정신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물론 이번 모교80년사 학교편 완성본이 역사책으로서 완벽하게 편찬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곳곳에 지적할 사항, 하자(瑕疵)가 많이 노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인 면을 덮고도 남을 긍정적인 면이 많음을 직시해야 한다. 80년 만에 최초로 거둔 ‘역사 기록’ 성과물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 책 발간이 불발되었다면, 과연 100년사 편찬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기록이 없는 학교로 전락할 뻔하지 않았는가. 이번 80년사는 위대한 100년사를 위한 서사(序詞)이자 준비 자료집인 셈이다.

개교 100주년까지 20년이 채 남지 않았다. 80년사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명문의 역사기록서를 만들어야 한다. 80년사는 자료발굴과 이를 기록하는 일에 치중했다.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역사를 기록하되 분석하는 역사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했다는 말이다. 100년사 편찬 시에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동문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모교 80년사 편찬을 맡은 편집위원들과 협조한 사람들. 사진 오른쪽부터 전섭태 편집위원, 박종찬 편찬위원장, 제작사 금성기획 최중환 대표, 김기열 이요섭 박종기 편집위원, 교열작업에 참여한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 서강태 경해석 편집위원.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무게 4kg, 본문만 1,500쪽 방대한 자료 담아 전문성 결여로 취사선택 미흡·나열식 아쉬움도

모교80년사 학교편 책 분석

이번에 세상에 나온 경남중고 80년사 학교사편은 미색 바탕의 고급용지에 A4크기로 제작되었다. 광고를 제외한 본문 면수가 무려 1,500쪽에 달한다. 무게로 따지면 케이스를 포함, 4kg이 넘는다. 경남중·고교의 방대한 80년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았으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제작 과정에서 처음에는 경남중사와 경남고사를 분리해 각 권의 책으로 편집했다가 한 권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한데 묶었던 것이다.

책 표지 제자(題字)는 서예가 김영일(16회) 동문의 휘호(揮毫)로 한글로 썼다. 본문 역시 한글전용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겸용해 써기도 했다.

책은 경남중·고 공통의 내용, 경남중



모교 80년사 편찬의 최종 작업인 교열업무가 남긴 자료들.

편, 경남고편, 그리고 광고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뉜다. 공통부분에는 발간사, 편찬사, 축사, 역대 총동창회장, 개교 환경을 담았다. 공통부분이 약 40쪽, 경남중편이 410쪽, 경남고편이 1,000쪽으로 구성돼 있다.

편집위원들이 2년여 시간 자료 수집과 원고 작성 및 편집에 매달린 결과물인 이 책에는 모교 80년 역사 기록이 망



모교 80년사를 탄생시킨 총동창회관 내 편찬위원회 사무실 내부 모습.

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 수집에 치중하다보니 하나하나가 소중한 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감한 취사와 선택,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부분별 편집하는 역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몇몇 역사학자 동문들이 편찬작업 참여를 기피,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점도 있다. 또한 긴 수정작업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게재된 경우도 더러 있다.

편집위원들이 집필 시작 전 충분한 토의 끝에 책의 골격을 짜두고, 각 항목별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써내려갈 것인지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탓도 있다. 개인별 글쓰기 개성을 존중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집필의 일관성 부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구간의 경우 그야말로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부분도 상당하다. 이리다보니 날짜별 내용이 너무 달리 전개됨으로써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워낙 써야 할 내용이 많아 일단 자료를 담아내는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8면에 넘김>

기부자 리스트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 대 옥	5억1400만원			21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 중 찬	2억4200만원			1940만원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김 진 철	1억1400만원			1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12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1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500만원			2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125만원	
7	24	박 흥 규	5000만원				
8	24	전 용 우	50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500만원	
10	30	김 현 태	5350만원			120만원	
11	30	윤 성 덕	6350만원			100만원	
12	37	허 부 남	5500만원			150만원	
13	38	권 두 성	7200만원			15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200만원			1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300만원			5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1	박 중 호	3450만원			100만원	
13	31	홍 성 수	3320만원			50만원	
14	33	김 법 영	4300만원			130만원	
15	35	장 인 화	3400만원				
16	36	박 진 용	3150만원			100만원	
17	38	정 재 형	3050만원			60만원	
18	39	박 근 태	3170만원			100만원	
19	40	우 영 환	3800만원			200만원	
20	44	탁 정 환	3500만원			30만원	
21	47	정 신	3510만원			18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2	이 재 원				1000만원	
6	15	손 부 흥	1600만원			30만원	
7	15	천 신 일	2430만원				
8	15	한 해 수	1000만원				
9	17	이 세 복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0	17	최 성 호	1000만원				
11	19	황 태 원	1000만원				
12	20	김 형 오	1000만원				
13	20	허 규 판	1000만원				
14	21	강 창 수	1700만원			30만원	
15	21	전 재 호	1000만원				
16	22	김 학 균	1000만원				
17	22	박 재 상	2000만원				
18	22	장 성 덕	1000만원				
19	22	장 성 복	1000만원				
20	22	허 범 도	1000만원				
21	28	노 영 현	1500만원				
22	30	정 경 목	1000만원				
23	32	이 중 환	2010만원			300만원	
24	33	이 순 화	1000만원				
25	33	최 운 남	1800만원			470만원	
26	34	박 철 응	1050만원			20만원	
27	34	이 진 호	1800만원			300만원	
28	41	이 양 걸	800만원			2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성 우	500만원				
5	17	조 증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흥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0	박 병 철	500만원				
10	23	이 병 찬	400만원			150만원	
11	23	이 상 수	650만원			12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2	25	김 익 수	800만원			150만원	
13	25	박 세 철	580만원			50만원	
14	25	손 기 천	550만원				
15	25	송 정 규	550만원			30만원	
16	25	이 명 철	710만원				
17	26	김 상 현	500만원				
18	26	박 재 옥	500만원				
19	26	박 효 대	500만원				
20	26	하 원 규	500만원				
21	27	김 태 우	550만원				
22	27	문 두 찬	600만원			30만원	
23	28	구 영 소	500만원				
24	28	이 원 철	950만원				
25	28	최 강 호	500만원				
26	29	이 석 조	600만원				
27	30	김 해 곤	700만원				
28	30	윤 인 태	610만원			20만원	
29	30	이 명 건	530만원				
30	30	이 학 수	700만원				
31	30	허정택(미)	615만원				
32	31	남 기 태	700만원			10만원	
33	31	류 명 석	680만원			100만원	
34	31	오 민 일	600만원			50만원	
35	31	이 병 태	600만원			50만원	
36	31	경 철 수	500만원			1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860만원			30만원	
39	41	김 정 태	510만원				
40	41	최 영 준	510만원			30만원	
41	44	안 병 규	600만원			180만원	
42	55	전 민 기				800만원	
43	64	표 중 빈	500만원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2022년 11월 29일 작성

개인			
5회	5	상 기 중 김 영 한 김 병 무 진 도 영 임 성 업	250
6회	1	오 영 은	100
7회	1	김 삼 현	500
12회	3	배 중 섭 이 재 원 조 한 기	30 1,000 3
13회	1	김 성 훈	10
15회	1	손 부 흥	100
17회	2	이 수 창 장 호 남	100 100
18회	1	하 영 일	30
23회	1	김 성 태	100
24회	4	곽 두 희 노 상 우 임 민 호 전 용 우	100 50 50 5,000
25회	8	곽 동 원 김 옥 철 김 중 현 김 진 철 박 중 찬 오 양 득 옥 동 훈 정 철 수	50 30 100 5,000 10,000 30 20 100
26회	1	박 상 호	1,000

개인			
27회	1	이 요 섭	100
28회	9	김 용 진	50
		노 영 현	100
		박 성 권	20
		박 중 기	100
		백 영 호	100
29회	7	엄 재 홍	100
		이 원 철	50
		임 재 덕	50
		한 명 재	100
		김 대 옥	44,000
		김 영 찬	100
		김 중 명	100
		이 문 열	200
		이 선 호	100
		차 의 수	100
현 응 열	100		
30회	1	김 현 태	2,000
31회	1	김 중 규	31
32회	1	이 중 휘	1,000
33회	6	김 기 산	30
		김 윤 성	50
		백 수 현	50
		이 동 근	100
		이 형 근	30
		최 중 남	800
34회	2	이 진 호	800
35회	1	박 철 응	550
		류 인 수	30

개인			
36회	1	정 윤 희	30
37회	1	이 수 환	30
38회	3	김 태 호	30
		김 언 규	30
39회	4	박 이 현	100
		박 중 국	10
		백 기 현	50
		윤 원 옥	100
		정 순 환	100
40회	1	한 수 열	100
41회	6	김 영 철	100
		김 인 수	100
		김 정 태	410
		이 양 걸	200
		최 영 준	410
		한 창 희	50
42회	1	정 용 중	30
43회	2	김 민 석	10
44회	1	김 진 수	20
44회	1	배 봉 건	30
44회	1	전 광 열	50
45회	3	권 우 일	30
		박 현 승	20
46회	1	조 태 성	450
47회	3	정 수 찬	20
		김 기 환	45
		정 신	300
48회	1	하 중 건	10
		김 춘 호	30

개인			
50회	1	정 재 우	100
52회	3	김 민 철	100
		김 상 곤	10
		김 언 진	10
53회	1	김 권 우	30
		고 지 현	10
54회	5	김 영 빈	10
		임 길 환	10
		정 준 섭	

지구동창회장단, 웃음과 단합의 시간

동래·금정지구 주관

경남중·고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이 지난 10월 19일 경남 양산 덕계 소재 중식당 ‘금천’(이문열 29회 동문 아들 운영)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주관했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소가 다소 멀지만 참석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각 기수별 모임과 함께 지구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보다 더 총동창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후임자인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의 동창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큰 기대를 줘 흐뭇하다”고 말하고, 덧붙여서 동문 모두 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무홍(25회·전 중부산지구동창회 회장) 라오스 대사가 2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해 이 자리에 참석, 환영을 받았다. 임 동문은 라오스 말로 “빠이와따뿌(원샷 정도 해석...10면 중부산지구동창회 기사에 설명)”를 건배사로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주관한 지구동창회장단 모임이 지난 10월 19일 열렸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날렸다. 각 지구별 회장단 인사와 건배제의, 지구별 구호 등이 진행되었다. 높은 도수의 고량주로 취기가 도는 가운데 웃음과 단합의 시간이 흘렀다.

지구동창회장은 이날 다음부터는 각 지구 회장만 참석, 모임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동래·금정지구 집행부-

정용운(32회) 회장, 이상화(25회)·이문열(29회) 고문, 이웅길(32회) 부회장, 김종엽(39회) 사무국장, 김경곤(38회) 홍보국장, 김현오(42회) 재무국장 △총동창회-김대욱 총동창회장, 현응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중부산지구-이영학(26회) 회장, 임무홍(25회) 고문 △강서지구-김종규(31회) 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남부산지구-이종휘(32회) 회장, 김정현(36회) 부회장, 조청래(45회) 사무차장 △부산진·연제지구-이윤조(33회) 회장, 김병기(39회) 사무국장 △북부산지구-박창제(35회) 회장, 박동렬(35회) 부회장 △해운대지구-정윤희(36회) 회장 △사하지구-허부남(37회) 회장, 신동훈(38회) 사무국장 ◇협찬(단위:만원)=총동창회 30, 중부산지구 20, 강서지구 10, 남부산지구 10, 부산진·연제지구 10, 북부산지구 10, 해운대지구 10, 사하지구 10.

55년 만에 다시 덕형관 찾은 ‘이방인 선생’

평화봉사단 솔츠 영어선생, 부인과 경남고 방문

“21~24회 가르친 기억 생생”

미국 평화봉사단(U.S. Peace Corps) 일원으로 1966년 9월~1967년 8월 경남고에서 영어 강사로 활약했던 에드워드 존 솔츠(Edward John Shultz) 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부인(Laurel Kamaile Shultz)과 함께 경남고를 방문했다. 솔츠 선생은 21회부터 24회 동문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고, 영어회화반을 지도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솔츠 선생은 1944년생으로 뉴욕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3세에 한국에 왔다. 이 인연으로 솔츠 선생은 고려사를 전공하여 미국 하와이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솔츠 선생의 모교 방문 소식을 듣고 이날 정영치(23회), 김정신, 안홍모, 이상룡(이상 24회) 동문이 자리를 함께하며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다. 김, 안 두 동문은 이날 서울에서 열차편으로 왔다. 또 솔츠 선생의 경남고 강사 시절 부산고에서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프랭크 씨(한국외국어대 교수 역임)도 찾아왔다.

이날 솔츠 선생은 경남고 회의실에서 백영선 교장의 환대와 함께 학교현황 설명을 들었다. 이날 시험기간이라서 솔츠 선생과 학생 간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솔츠 선생은 이 자리서 옛날을 기억했다. 덕형관, 박경원 전 교장, 허민호

(독어)·이희문(생물·6회) 선생 등에 대해 아슴푸레한 추억들을 더듬어 나갔다. 또 덕형관 도서관과 교정을 둘러보고 5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발전하고 잘 정돈된 학교의 모습에 무척 기뻐했다. 경남고의 자연환경 조건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일행은 경남고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함께 들었다. 모두가 알찬 식단에 감사의 인사를 연발했다.

안 동문은 솔츠 선생의 저서 ‘무신과 문신(Generals and Scholars)’(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을 다룬 내용)을 갖고 와 솔츠 선생의 친필사인을 받기도 했다.

경남고는 이날 솔츠 선생에게 방문 기념으로 학교앨범, 손수건(이태석 신부 기념), 타월을 선물했다. 총동창회에서 모교 80주년 기념 엠블럼 우표와 타월을 전했다.

솔츠 선생 일행과 이날 참석 동문 간의 대화는 경남고를 나와서 학교 및 카페에서까지 이어졌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학창시절에 만났던 외국인 선생과의 인연을 55년 만에 소환했으니 감회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다.

카페의 잔이 비워지자 솔츠 선생은 다음 일정을 위해 작별을 고했다. 솔츠 선생의 이날 방문은 ‘인연이 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같았다.



55년 전 경남고 영어강사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존 솔츠은사(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 내외가 경남고를 방문, 제자 및 경남고 교직원과 함께 용마상 앞에 섰다.

에드워드 존 솔츠은사와 제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정신, 이상룡(이상 24회), 솔츠은사, 정영치(23회) 안홍모(24회) 동문.

“안용백 교장 흉상 보고 싶어서...”

기증자 강주홍 동문 유족, 오사카서 동창회관 방문

2009년 4월 30일 모교 개교 67주년을 기념하여 안용백 초대교장(해방 후)의 흉상을 제작하여 경남고에 기증하고 장학금 5억원을 희사했던 고(故) 강주홍(7회) 동문의 유족들(일본 오사카 거주)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 방문 일행은 지난 2020년 9월 작고한 강 동문의 미망인 김명엽 여사를 비롯, 두 아들과 며느리 1명 그리고 동생 인홍 씨 등 5명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6월 총동창회관 개관 직전 경남고 교정에서 총동창회관 계단 복도로 이전, 안치돼 있는 안 교장의 흉상을 보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에 앞서 일행은 강 동문의 유언에 따라 유해(일부)를 고향 남해 부모님 산



고(故) 강주홍(7회) 동문의 일본 거주 유족들이 총동창회관에 안치된 안용백 교장 흉상을 보러왔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부인 김명엽 여사.

소 옆에 뿌리기를 하였다. 이날 유족들은 강 동문에게 평생의 가르침을 준 안 교장의 흉상을 쓰다듬으며, 70여년 전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운명적 만남을 기억했다. 일행은 총동창회관 내 미니역사관을 둘러보았다. 총동창회는 이날 모교 80주년기념 엠블럼 우표와 타월을 방문 기념으로 선사했다.

지역·지구 동창회

“인재 산실’ 지구답게 힘 모으자”

남부산지구 정기모임

남부산지구동창회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남구 용호동 소재 이가한우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16회부터 56회까지 40명에 육박하는 동문이 자리했다.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인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구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실천을 못했다. 이제 모임 활성화에 시동을 걸자”고 말하고, 신상발언을 했다. 이 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맡기로 했다. 남부산지구가 나를 만들었다. 남부산지구와 함께 총동창회를 멋지게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행사 말미에 내년 총동창회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며 “평준화 세대가 멋지게 펼쳐 보이겠다. 각종 부문에서 신기록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모교80년사 편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총동창회장이로서 이루지 못한 것을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천명 달성 △48회 동기회의 중동창회 참여로 규정하고 이 회장이 실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철(16회·전 남구청장) 동문은 건배사에서 남부산지구 집행부와 박고문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최근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에 선임된 정량부(17회·전 동의대 총장) 동문에 대해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오랜만에 참석한 김현덕(24회) 동문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서 정량부 동문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동문들의 복된 연말연시를 축원했다.

이날 모임의 막내인 장재환 56회 동기회장은 12월 3일 개최하는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소개하고 남부산의 열기를 받아 잘 치르겠다고 밝혔다.

참가자 한 분 한 분 소개에 이어 총동창회 현응열(29회) 사

무총장이 12월 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용마의 밤’ 행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호소하고, 총동창회 격려금을 전달했다.

뒤풀이는 이가한우 4층 루프탑(Roof Top)에서 열렸다. <찬조>=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 고문 2차 뒤풀이 경비 <참석자(존칭 생략)>=이종철(16회) 정량부(17회) 김현덕(24회) 박종찬 최재환(이상 25회) 현응열 김종명(이상 29회) 이종휘 김형수 김규원 예동해(이상 32회) 정병기 김정현(36회) 김성일(37



남부산지구동창회 11월 정기모임 전경.<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회) 김태성(38회) 박용한 정우영 윤원욱(이상 39회) 한수열 박기엽 배병훈(이상 40회) 정용중 박동식(이상 42회) 조청래 최윤석(이상 45회) 감기환(47회) 김석훈(50회) 오성진(51회) 문희규 이진수 이원준 송승윤(이상 53회) 고지현 이재필(이상 54회) 이동규 장지훈 황시우(이상 55회) 장재환(56회).



남부산지구동창회가 정기모임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벼운 가을산행으로 재충전의 시간

중부산지구 모교 뒷산 걷기

중부산지구동창회가 지난 11월 12일 가을산행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의 정체된 모습을 탈피하려고 기획했다. 경남고 정문 앞에 집결해서 경남고 돌레길~숲썬로드~내원정사~꽃마을 소재 소담식당으로 이어진 코스였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이날 오전 10시 동문들이 집결지에 모여, 인사와 일정 소개, 기념 모자 배부, 산행기념 촬영 등을 마치고 산행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라오스 대사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한 임무홍(25회) 고문이 참석했다. 임철호(24회) 고문은 양손에 스틱을 쥐

고 도착했으나, 산행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차로 꽃마을로 이동 후 내원정사 주변을 산책기로 했다. 박종기(28회) 부회장, 김형준(44회) 동문은 개인 일정으로 산행을 못하고 돌아갔다.

숲썬로드는 난이도가 꽤 있었지만, 전체 산행은 가벼운 산보 수준이었다. 대화하며 천천히 걸어 40분 정도 걸리는 단거리 코스였다.

내원정사 경내 구경 후 꽃마을 소담식당에서 오찬을 즐겼다. 오리고기와 도토리묵, 파전에다 야쿠르트를 탄 막걸리로 흥겨운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임철호 고문의 중부산지구동창회 전



중부산지구동창회 가을산행 중 참가자들이 휴식처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

통의 건배사(‘위하여’ 3번 복창+박수 3장)를 시작으로 참가자 모두가 본인 소개와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영학(26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야외활동이다. ‘젊은피’ 합류가 여의치 않다. 후배기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무홍 고문은 “귀국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게 중부산모임이었다. 예전에는 중부산 모임이 막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위축되었다. 참여율 높여 모임 활성화를 기하자. 미력이나마 일익을 하겠다”고 밝히고 “라오스에서의 활동에 중부산지구동창회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건배사를 라오스말로

“빠이 와파빠(‘빠이’-가자, ‘와파빠’-라오스 최남단 지명...술잔을 맨 밑에까지 비우자는 의미로 ‘원샷’ 정도 해석)”라고 했다.

이날 56회 홍대규 동문이 모임에 처음 참석, 자원봉사역을 자임했다.

중부산지구는 오는 12월 21일 송년회 겸 임시총회를 갖는다.

<참석자(존칭 생략)>=임철호(24회) 임무홍 장세훈(이상 25회) 이영학(26회) 박종기(28회) 김종명(29회) 박성철(32회) 김종만(33회) 김창일(36회) 안승진 윤원욱(이상 39회) 최영준 성찬기(이상 41회) 송정열(42회) 김형준(44회) 육한수(46회) 양현진(54회) 홍대규(56회) <찬조(존칭 생략)>=장세훈 10만원, 이영학 30만원, 박종기 20만원, 박성철 10만원, 김창일 5만원, 안승진 5만원, 최영준 20만원, 전삼록(41회) 10만원, 김영휘(43회) 기념타월 50장, 김형준 한방소화제 20개, 권우일(45회) 현수막.



중부산지구동창회가 가을산행을 마무리하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지구 동창회

창원지역, 새 회장에 김해곤(30회) 동문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 거행...70명 참석 성황

창원지역동창회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창원 머큐어엠배서더호텔 발야드홀에서 2022년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를 열었다. 3년 만에 개최한 용마의 밤 행사에 이경재(13회) 이수창(17회) 김재근(19회) 등 지역 원로 동문들이 다수 참석, 후배 동문들에게 귀감이 된 가운데 전체 70명의 동문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 김대욱 총동창회장(29

회),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도 원정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공로상 시상이었다. 직전 23대 회장이었던 정영주(28회) 동문이 공로패와 부상(골드바)을 받았다.

김정암(29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 코로나19와 임기를 같이해 아쉬움이 크다. 선후배 동문들의 도움으로

동문회 결속을 유지해 와 감사하다. 차기 회장이 잘할 것이라 부담없이 자리를 떠난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 산하 직능·동호회, 지구, 동기회 등 각종 조직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다. 후배 기수의 열정적 참여로 분위기가 좋다. 창원지역도 보다 튼실한 동창회가 되어 총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참 이경재 동문은 격려사에서 “모교는 지난 80년 동안 술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전세계 각지에서 동문들의 활약상이 빛난다. 경남중고인의 힘이요 자랑”이라면서 “평준화속에서도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자”고



창원지역동창회 김정암 회장이 김해곤 차기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역설했다.

이어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암 회장이 김해곤(30회·김안과 원장, 여수 시티파크CC 회장) 수석부회장에 회기를 전달하고 회장직을 인계했다.

김 제24대 신임회장은 이 자리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음을 갖고 수락했다. 갈수록 참여 회원 수가 줄어들어 안타깝다. 모든 동문이 도와주면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가 제창에 이어 이수창 동문의 ‘참여 독려’ 건배사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창원지역동창회 2022년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꾸준한 모임 실천 “우정도 오래~오래~”

해운대지구 정기모임



해운대지구동창회 정례모임 마무리 장면.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해운대지구동창회 정례모임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해운대 좌동 양고기 전문식당 예담에서 열렸다. 13~44회 동문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나누었다.

정운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인원이 적다. 최소 50명 이상은 모이도록 하자. 오는 12월 29일 개최 예정인 송년회 때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햇수로 회장직 수행이 5년 됐다. 내년 2월 회장 이취임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좋은 계절에 반가운 얼굴들과 자리 하니 정겹다. 정운희 회장의 역할이 대단하다. 동창회는 자주 모이는 것이 중요한 덕목인데 이를 잘 실천해왔다”면서 정 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종찬(25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32회에서 총동창회 신임 회장을 배출한다. 30회 기수 이후가 주류가 되는 새 출발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더욱 호응하고 총동창회 활성화를 돕자”면서 각 지구동창회의 조직시스템화를

강조했다.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은 “확실하게,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수별로 인사와 개별 소화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해운대지구 동문들의 기수별 분석을 보면, 40대 기수가 2명, 50~60대 기수 전무한 상태이다. 회원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사를 마치고 후배기수들을 중심으로 2, 3차까지 가는 우정의 뒤풀이가 진행됐다. 2차 경비 일부 박상현(37회) 동문, 3차 경비 전액 이성엽(34회) 동문이 각각 찬조했다.

◇참석자(존칭 생략)=윤기갑 배대결(이상 13회) 이강석 김화옥(14회) 김인구(24회) 박종찬(25회) 조만석 김태용(26회) 이영희(28회) 김대욱 김종명 현응열(이상 29회) 이종휘(32회) 박상국 송종현 배성만(이상 33회) 이성엽 박철웅 김태관 김중근(이상 34회) 장상욱 김창일 최재혁 윤경준 최태섭 정운희(이상 36회) 박상현 권혁상 이수환(이상 37회) 김태호 김근홍(이상 38회) 윤원

강서지구, 동문탐방 제20탄 실시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 대상...강서 미래 비전 들어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11월 14일 동문탐방 시리즈 제20탄으로 강서구청장인 김형찬(41회) 동문을 찾아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 동문은 지금까지 ‘위대한 강서시대’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 강서구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줄 메시지인 셈이다.

김 동문은 경남중(토성중) 출신으로 해동고를 나왔다.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4회 지방고시를 통해 건축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도시·건축·건설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자타공인 전문직 공무원이다.

강서지구동창회에서 김종규(31회) 회장, 이병훈(32회) 수석부회장, 김재성(35회) 부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김성준(44회) 윤호재(49회) 구민수(50회) 김덕형(66회) 동문 등이 탐방에 참여했다.

이날 김 동문은 평소 청렴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조심하며 살아온 것이 구청장 선거 후보로 발탁된 바탕이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얼마 전까지 수십년간 단독주택에서만 살아온 ‘융통성 없는 가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김 동문은 “경남중고동문회 활동은 선거에 나서면서 시작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서구에서 당선되었다. 1등 공신은 경남중고동문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경남중고 동문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일을 하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김 동문은 서부산권의 발전을 강조하며 청사진을 풀어놓았다. △준비된 의료부지에 대형병원 유치 △체대로 된 가덕신공항 건설 △외국인 학교 유치로 국제도시 면모 갖추기 △강서 구도심, 택지지구로 재개발 등 다양한 구상이 쏟아졌다.

이날 탐방 참여 동문들은 ‘위대한 강서시대’를 미리 보고 돌아왔다.



강서지구 동창회는 동문탐방 시리즈 제20탄으로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을 방문했다.

욱(39회) 임태영(40회) 조영호(44회).
◇찬조=김대욱 총동창회장 20만원, 박

종찬 고문 20만원, 이종휘 수석부회장 20만원.

기별야구대회

장년부 33회 9번·청년부 47회 7번째 우승 '금자탑'

기별야구대회 폐막...3년 만에 활기 찾고 지속성 확인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치른 제5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는 이번이 없는 결과를 낳고 지난 10월 22일 오후 경남고 운동장에서 폐막했다. 지난 10월 1일 개막식에서 우승기를 반환했던 장년부 33회와 청년부 47회가 또다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성적으로 33회는 9번째, 47회는 7번째 기록이다. 막강 전력은 물론이고, 동기간 단합과 결속력 없이는 불가능한 전적이다.

장년부(~43회) 결승에서 41회를 10:2로 여유 있게 제압한 33회는 출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났다. 선출(선수 출신) 5명에 자녀 선수 1명이 포함돼 있다. 탄탄한 수비와 타순의 고른 활약 등 난공불락(難攻不落)의 팀이 되었다.

33회 박상국(롯데자이언츠 출신) 감독은 "33회 야구팀은 단합이 잘 된다. 전국에서 선수들이 모였다. 전국에 산재한 친구들이 잘 모이니 막강한 전력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별야구대회 10회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10회 우승 달성 시 모교를 위한 기념적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33회는 개인 시상 수상자 선정을 팀원 안배 형식으로 선정했다.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배려였다.

공진우(한국항공 군무) 33회 야구팀 단장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 출시를 기념하여 제작한 모자를 33회 동기들에게 나눠주며 대회 우승을 자축했다.

청년부(44회~) 결승전은 미 메이저 리그보다 더 재미있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47회 야구팀은 젊은 패기와 매서운 화력을 자랑한 52회에 6:13으로 밀리다가 끈기와 관력으로 14:13으로 역전, 이어서 14:14로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연장 6회에 44회 장순재(부산남구리틀야구단 감독) 동문이 결승 만루홈런을 쳐 19:14로 팀 우승을 견인했다.

47회팀은 우승 상금 전액을 대회를 주관한 경야회 집행위원 회식비로 회사했다.

◇시상 내용 : ▲장년부=△우승 33회-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50만원 △준우승 41회-트로피와 상금 30만원 △최우수선수상 장정석(33회) △최우수투수상 김종근(33회) △감독상-전삼록(41회) △타격상-1위 김경곤(38회), 2위 서



제5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폐막식 모습.<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장년부 우승 33회 선수단의 모습.



청년부 우승 47회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제5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에서 장년부(오른쪽)·청년부 우승팀이 각각 우승기를 받고 있다.

상대(41회), 3위 강훈(41회) △감독상-박상국(33회)

▲청년부=△우승 47회-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50만원 △준우승 52회-트로피와 상금 30만원 △최우수선수상 설진석(47회) △최우수투수상 감기환(47회) △감독상 김경우(52회) △타격상-1위 김명진(47회), 2위 정길수(52회), 3위 최석용(52회) △감독상 서정민(47회)

이날 폐회식에는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이동근(33회) 용마골프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김동주(51회) 경야회 사무국장, 김상욱(53회·경남중 야구부 감독) 대회 심판위원장과 경야회 및 사무국 집행위원, 청·장년부 선수단 등 100여 명에 가까운 동문과 가족이 자리했다.

이날 이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폐회사를 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대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기쁘다. 대회를 주관한 경야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승팀에게 축하를 드리고, 준우승팀은 내년을 기약하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더 멋지고, 더 파이팅 넘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개막식 때 열린 홈런레이스 우승자에 대한 트로피 증정식이 있었다. 장년부 이윤조(33회) 동문과 청년부 이항림(55회)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 자리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야회에 대해 참석자들의 박수세례,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의 폐회선언, 교가 제창으로 대회는 막을 내렸다.

대회 집행위원장이인 조 경야회 회장은 이번 대회와 관련, "심판진을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정식 심판들로 구성, 원만하게 경기를 잘 진행했다. 이 대회는 이기기보다 즐겁게 선후배간 우정을 쌓는 경기이다. 화합하고 재미난 기별야구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대회가 활기를 되찾고 발전되어 간다"면서 "대회 기간 중 매 주말 나와 수고한 집행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무리가 잘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고한 경기진행 요원은 서정민(47회) 김정현(50회) 이정민(52회) 김성환(61회) 오승우(65회) 동문이며, 총동창회 사무국 차원의 집행요원은 오일남(43회) 손창오(초청래(이상 45회) 박보순(51회) 오신우 임동섭(이상 56회) 동문이다.

용마당구대회



제8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쟁탈 용마당구대회가 열린 남포동 다빈치당구클럽 전경.<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엇비슷한 기량의 대격돌, 결과는 ‘구력’에서 26회, 36회 제치고 처음 입상에 우승까지 질주

제8회 용마당구대회 성료 16개 기수 22개팀 출전

‘당구는 역시 구력이다.’ 지난 11월 26일 남포동 다빈치당구클럽에서 열린 제8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쟁탈 용마당구대회 결승전 관전평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전반적으로 기량이 엇비슷해 자웅을 겨루기가 힘들 정도였다. 제한시간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회에서 올해 고희(古稀)를 맞은 26회가 10기수 아래의 36회B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회를 치른 이날, 역대 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는 26회로선 무척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결과였다. 26회 출전 선수는 김섭권 허종 송진성 손영수 김태규 동문이다.

준우승 36회B는 지난 제5회 대회 우승 영광을 재현해 보려했지만, 관록의 26회에 밀려났다. 36회B 선수는 정병기 성귀호 우한주 박재영 동문이다.

3위는 27회, 4위는 28회A가 차지했다. 27회 출전 선수는 백승엽 배기용 양태종 이인규 동문이다. 28회A는 김태영 박영규 김보상 조광제 동문이 출전했다. 패자전에서 33회가 우승, 36회A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출전 선수는 33회 박상국 최환호 백홍문 유희철 박근보 김춘복 동문, 36회A 김한교 맹경태 이필이 전현우 동문이다.

하이런상은 28회A의 김태영 동문에 게 돌아갔다. 점수는 9점이다.

이번 제8회 대회에는 16개 기수에서 총 22개팀이 출전, 자웅을 겨루었다. 참



▲제8회 용마당구대회에서 우승한 26회팀이 우승기를 받고 있다.

◀제8회 용마당구대회 준우승 36회B팀 시상 모습.

가선수들의 열정은 이날 개회식(오전 9시) 1시간 전부터 당구장에 입장, 몸풀기를 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여러 각 기수 당구애호 동문들도 대회장에 참관하여 동기 선수들을 응원했다.

개회식은 김옥권(25회) 용마당구회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회장이 임원진을 소개했다. 장세훈(25회) 수석부회장, 김 운영위원장, 조광제(28회) 경기위원장, 김 영화(29회) 심판위원장, 박종석(32회) 운영위원, 유승민

(34회) 사무국장이 인사했다.

노 회장은 대회사에서 “현재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어려운 상황이나 3년 만에 대회를 갖게 돼 기쁘다. 참가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국적으로 당구동호회원이 1천2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생활체육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다. 당구대회를 통해 동문 선후배 동호회원간 교류와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제8회 용마당구대회 패자전 우승 33회팀(사진 왼쪽)과 준우승 36회A팀 시상 모습.



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3년 만에 대회가 재개돼 기쁘다. 용마당구회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한다. 용마당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총동창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승팀 25회의 우승기반환과 조 경기위원장의 경기규칙 설명이 있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일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5분 결승전 종료까지 장장 8시간 여 동안 경기장 당구대에서는 당구공이 부딪치는 경쾌한 소리가 지속됐다.

오후 4시 50분 결승전과 3,4위전이 시작됐다. 45분간의 경기를 마치고 깨끗한 결과 승복과, 축하 및 격려의 상대팀 간 인사가 있었다.

폐회식이 진행됐다. 성적발표에 이어 시상, 그리고 노 회장의 폐회인사, 경품추첨이 있었다.

우승 26회에는 우승기와 우승상금 50만원이 시상됐다. 준우승 36회B에는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용마당구대회 역대 성적 중 제6회 우승은 24회, 제7회 우승은 25회가 차지한 데 이어 제8회 우승을 26회가 거머쥐어, 제9회 대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미난 상상을 하는 동문도 있었다.

◇협찬=총동창회 100만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50만원,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회장 100만원, 장세훈(25회) 수석부회장 100만원, 24회 이사빌 회장 30만원, 김진철 50만원, 김종현 30만원, 배대관(이상 25회) 동문 10만원, 쌍백회(25회) 10만원, 우리끼리(25회) 10만원, 25회 동기회 10만원, 26회 동기회 10만원, 삼목회(29회) 20만원, 김영화(29회) 동문 30만원 상품권

◇물품협찬=총동창회-후드티 20벌·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우표 엠블럼 10개 (총 130만원 상당), 구효진(41회) 동문-치약·무선블루투스·수저세트·남성화장품·양말.



제8회 용마당구대회에서 우승한 26회(사진 왼쪽)와 준우승한 36회가 각각 자축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홈커밍데이



16회 동기회가 졸업 60주년 기념 1박 2일 수학여행으로 거제·남해 등지를 다녀왔다.

16회, 졸업 60주년 기념 ‘수학여행’

거제·남해서 1박 2일 ‘동심’여정...38명 참가

*16회 동기회가 졸업 60주년 기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기를 보내왔다. 요약해서 본지에 게재한다. 동기생 성함 존칭 생략.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 40분. 경남중고 16회 동기생(명패를 착용) 30여명을 실은 관광버스는 거제를 향해 출발했다. 김정균이 운전기사에 팀을 주자마자 가이드를 맡은 강종국도 농담조로 팀을 달라고 하자 김한선이 모자를 들고 모금. 무려 28만원이 걷혔다. 공명규 권명석 김봉구 김정균 이종철 이치호 정우광 한일랑 동기가 쾌척했다.

가덕도휴게소에서 잠시 휴식. 거가대교를 건넌 뒤 매미성을 둘러보고, 거제 순봉가 토종한우식당에서 국밥과 한우 육회로 점심을 마쳤다. 이어 삼천포대교, 창선섬, 창선대교를 지나 독일마을,

원예예술촌을 관광했다.

엘림마리나&리조트에 도착하여 서울서 현지로 온 친구들(김창희 박상우 신은조 천 경)과 반갑게 만났다. 서울친구 공명규와 이치호는 부산에서부터 함께 왔다.

여장(4인1룸)을 푼 후 아날로그홀(최초의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1900년대의 음향시스템)을 관람하며 흘러간 노래 ‘애수의 소야곡’을 유성기판으로 들었다. 바이크갤러리(국내에서 보기 힘든 최신형 모터사이클 120여대 전시)를 둘러보고 만찬장(바다소리횃집)으로 향했다.

식탁 위엔 진로 일품(一品) 6병(송규정 제공)이 놓여 있었다. 한 잔 마셔본 김창희(재경동기회장)는 금일봉(50만원)을 협찬하더니 건배사로 한마디 한다. “우와! 화맛이 뛰어나는구먼”. 즐겁

게 먹고 마시며 떠들었다.

선착장(3면이 바다)에서 2차파티가 열렸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김한선이 ‘동심초’를 부르자 흥정길이 가을노래로 거들더니 한참 올라가다가 가사를 몰라 우물거린다. 신은조가 틀린 가사로 이어 부른다. 박상우와 이맹립은 연방 소주와 안주회를 갖다 날랐다.

실내조는 일찌감치 화투판을 벌이고 있다. 김봉구가 초반부터 튀기 시작하자 들러리들(김인국 이양근 이치호)한테 보글채우기 시작한다. “너그는 집에서 고스톱연습을 좀하고 와야지 와이래 허약하노” “야 임마! 고만 씨부리고 빨리 패나 돌려라.”

4명이 둘러앉아 쓸데없는 토론을 하는 심각한 방도 있다. 주제는 ‘한밤중 화장실 몇 번 가나?’였다.

이튿날 조찬으로 황태해장국을 모두한 그릇씩 비우고, 지평막걸리로 해장술을 한잔씩 들이켜기도 한다.

빨간 구멍조끼를 입고 요트(Luxury

Power Yacht)를 타고 1시간가량 힐링을 겸해 남해바다를 휘돌았다. 전원풍경(독일마을, 미국마을, 원예예술원쪽)을 쳐다보니 절경이 따로 없다.

남해명물인 멸치쌈밥, 생선구이집 풍운정(조금일 여동생집)에서 점심을 했다. 송규정이 특선 전어젓갈 8통을 구입, 서울친구(6명)와 부산집행부(2명)에게 선물로 준다.

남해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친구들과 이별하면서, 내년엔 중간쯤이라도 좋으니 서울-부산합동수학여행을 해보자고 다짐한다. 천 경은 고향 삼천포에서, 강진중 이명수는 진주휴게소에서 하차했다.

부산친구들은 연산로터리 해암뷔페에 도착, 저녁식사를 가졌다. “변사또”(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만납시다)를 건배사로 다함께 크게 외치며 졸업60주년 수학여행을 마무리했다.

나흘 후인 10월 25일 오후 수학여행에 수고한 친구 강종국 김한선 서고명 손송방 이점일 최정일은 가이드팀으로 피로연(대신동오막집)을 가졌다.

◇참가자(38명): 강상권 강종국 강진중 권명석 김봉구 김상호 김인국 김정균 김찬문 김한선 문성환 박기용 박민소 박영수 서고명 송규정 안국정 옥무웅 이점일 이맹립 이명수(밀양) 이명수(합천) 이양근 이종철 정영일 정우광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랑 흥정길 황규정 (서울)공명규 김창희 박상우 신은조 이치호 천 경.

24회, 졸업50주년 ‘청춘 페스티벌’

‘홈커밍’ 못한 서운함 달래며 결속 강화 자축연 추억의 옛길 트레킹·천황산 등정 등 건강 과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졸업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못 치른 24회 동기회가 “그냥 갈 순 없잖아” 하면서 다양한 대체 행사를 펼쳤다. 지난 9월에는 경부합동으로 지리산 종주 성공으로 축하 행사 서막을 연 바 있다.

24회는 대체 행사를 ‘50주년 청춘페스티벌’로 명명하고, 시즌1로 ‘추억의 옛길 걷기’, 시즌2로 ‘천황산 등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24일(월)에는 중·고 학창 시절 열정의 까까머리로 누웠던 서구, 중구, 영도구의 옛길을 둘러보고 추억담을 나누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추억의 옛길’ 트레킹 행사를 가졌다. 칠순이 훌쩍 넘은 무려 74명의 동기와 배우자 1명이 참석했다. 바로 ‘막강 24회’의 저력이었다.

영도 현인동상 앞에서 집결하여 출발했다. 영도대교 밑~자갈치~BIFF광장~대각사~국제·부평시장~보수동 책방골목~충동창회관~경남중학교~토성초

등학교~충무동 골목시장~서구청~공밭에 식당’에 도착했다.

기념식 거행 후 저녁식사-유홍시간 및 행운권 추첨을 했다. 교가와 후라삼장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참석자 : 강동우 곽두희 구자용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명배 김무성 김성권 김성득 김유신 김인구 김인철 김장현 김정권 김중섭 김해룡 김현덕 노상우 박인호 박태진 박해성 박홍규 배상욱 배재일 배중갑 손세영 신병현 안명수 안상수 안태인 안형수 여철우 오명훈 오성환+♡ 옥태인 원희광 유홍석 이상룡 이상우 이수이재능 이창무 이현우 임덕철 임민호 임철호 장동출 장민재 장수현 장원서 장현동 정구환 정기춘 정기호 정영환 정준석 정태운 조영태 조재진 주점권 차동렬 최동우 최명진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최창림 태창업 하재갑 한승철 황규선 황성동 황성훈 (74명+♡1명)

이어서 지난 11월 2일(수)에는 부산 산우에 주관으로 3년 만에 경부합동산행



24회 동기회가 졸업 50주년 기념 대체 행사로 천황산 등정을 성공리에 진행했다.

으로 천황산 등정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50주년 청춘페스티벌 시즌2 개념으로 부산 산우애와 재경 산타래 회원만이 아닌 전체 동기회원을 대상으로 치렀다.

부산진역에 집결, 출발하여 울산역~얼음골케이블카 상단정류장~샘물상회 갈림길~천황산(1189m) 정상~천황재~케이블카 상단정류장~식당~울산역을 거쳐 부산진역으로 회귀하는 코스였다.

산우애 회원 35명과 배우자 4명, 산타래 회원 23명과 배우자 8명 등 모두 70명이 참가, 역대 최다 참가기록을 수립했다.

◇참석자=(부산팀) 곽두희 구자용 김도인 김도현 김성권 김성득 김인구 김

인철 김헌태 김현덕 박해성 백산품 손세영 안태인 안형수+♡ 여철우 오성환+♡ 유홍석+♡ 이창무+♡ 이현우 임민호 장동출 장수현 장현동 정기춘 정영환 조영태 조재진 최동우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태창업 한승철 황규선 (35명+♡4명)

(재경팀) : 강기중+♡ 권영기 김영철+♡ 문병대 박군철 박성표 박장호 변중석 서기홍+♡ 손인수 신병식+♡ 안형모 양재일 유인환+♡ 유철주 이한영+♡ 이한국+♡ 정승화 정진락 최홍철 추현무 하석봉+♡ 한예식 (23명+♡8명)

한편 24회는 12월 15일(목) 오후 6시 미정횃집에서 2022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홈커밍데이

26회 '추억의 50년 화합의 밤' 개최... '미래 30년' 기약

1박 2일 일정 210명 참석, 학창시절 추억 되살리며 우정 나눠

제26회(동기회장 박상호) 졸업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10월 15~16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15일 오후 6시 해운대 시그니얼호텔 연회장에서는 은사와 동문 및 가족 등 210여명이 참석한 축하연이 성대하게 열렸다.

'추억의 50년 화합의 밤'으로 명명된 이날 축하연에는 네 분의 은사(이희문, 이원균, 손충익, 이준식)가 참석, 제자들과 추억을 이야기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26회 동기들은 우정을 밤새 나눴다.

축하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행사가 본격 열리기 전 행사장 각테일 리셉션이 진행됐다. 행사 개막 30분 전부터 동기들이 삼삼오오 도착하여 스탠딩 환담회를 시작하였다. 한손에 와인을 들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으며 50년 전의 가까머리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식전 정리 멘트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전문MC 김경진(44회) 동문이 이날 행사 1, 2부의 사회를 맡았다.

조만석 동기기 부회장이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선언했다. '추억의 50주년 화합의 밤'이 열렸다.

1부 행사에서 박상호 동기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술은 오래된 술이 좋고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운동장에서 술구도 하고 때로는 월장했던 추억을 되살리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영혼을 나누는 친구입니다"라면서 "온갖 풍설을 이기고 50성상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친구들이여, 이제 미래 30년을 준비합시다"라고 말했다. 가슴 벅찬 감격이 목소리에 실려 장내 참석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

박 회장은 학창시절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은사 한 분 한 분 소개하며 추억을 공유하였다.

박오옥 재경동기회장은 환영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이



졸업50주년을 맞은 26회 동기기 홈커밍데이 행사로 경남고를 방문, 덕형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6회 동기회가 졸업50주년 기념행사로 경부야구대전을 펼쳤다.

렇게 치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성공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50주년 홈커밍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라며 "멀리 타향에서 찾아온 옛 친구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 본부 동기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더했다.

은사 대표 축사에서 이희문(6회) 은사는 "10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이번 50주년 행사 다음으로 60주년 그리고 반드시 70주년까지 행사를 하세요. 그래야 지금 내 나이와 같아진다. 그때 나는 멀리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차면서 절정의 분위기로 치달았다.

계속해서 은사 선물 전달, 케이크 커팅, 교가 제창과 만찬이 이어졌다.

여흥의 시간 2부 행사는 여느 기수와는 '급'이 다른 면모를 보였다. '재간꾼'으로 이름난 MC 김 동문이 흥을 북돋워가며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추억의 팝송 기타연주, 초대가수 3명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행사 중간중간 사회자는 상품권을 나눠주고, 퀴즈를 내 정답자에게 롯데 자이언츠서 은퇴한 이대호(55회) 동문이 사인한 야구배트 3개를 경품으로 선물하였다.

이날 축하연 행사는 집행부의 감사인사와 '후라 경고'로 끝이 났다.

외지 참석자는 분산해서 해운대 토요일 코인호텔과 사상 비즈니스호텔 르네상스에 숙소를 잡았다.

한편 축하연 행사에 앞서 26회 동기생들은 이날 낮 12시 모교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참석자를 3개조로 나누어 일정을 소화했다. 1조는 경부야구대전, 2조는 경남중 및 총동창회관 방문, 3조는 대신공원 산책으로 꾸렸다.

특히 1조 경부야구대전은 부산과 서울이 각각 팀을 결성, 야구시합을 가졌다.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친목의 자리인 만큼 점수 계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서로의 건강과 열정을 확인하고 경기를 1:1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행사 이튿날인 16일에는 오전 10시 남구 용호동 다이아몬드베이 선착장에 집합, 부산요트 투어를 진행하였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광안리와 해운대 앞 바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후 청사포도회네식당에서 각종 조개류 및 해산물과 부산이 자랑하는 싱싱한 회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홈커밍 해단식을 가졌다. 26회의 졸업50주년 기념 공식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축하연 행사에서 후배들이 도우미를 자처하며 진행요원으로 행사를 도왔다. 진행요원은 성찬기(41회) 이육한 장지훈 최유성 박기홍(이상 55회) 등 5명이다. <글·사진=성찬기(41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사무국장>



졸업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참가자가 친구를 부르는 모습.



경부야구대전에 참가했다가 함께 도시락을 먹는 모습.

홈커밍데이

46회, “영원한 동기의 우정이 행복한 인생의 힘”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동창회·모교 발전 밑거름 되자”



46회 홈커밍데이 행사장에서 주요 인사들이 건배하고 있다.

더 구체화하고 더 체계화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는 격려금 50만 원을 전했다. 각계 지원금 전달이 진행됐다.

46회는 감사패 전달식을 이어갔다. 경남고 야구부 코치인 정수찬 동기, 10년 전 졸업20주년 기념행사 시 노고가 컸던 46회 초대 사무국장이었던 송영주 동기, 그리고 10년간 동기회 사무국장을 맡아 수고했던 최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46회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후원금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 총동창회 발전기금 200만 원을 현응열(29회) 사무총장에게, 경남고 야구부 지원금 400만 원을 전광열(44회) 감독에게 각각 전달했다. 경남고 발전기금 400만원은 학교를 방문하여 백영선 경남고 교장에게 전했다.

이어서 축하케이크 커팅과 건배제가 있었다. 최 회장은 “46회 동기들아, 사랑한데이!”라는 건배사를 날렸다. 교가제창과 만찬 순으로 1부 행사는 끝났다.

전문MC인 김경진(44회) 동문이 사회를 맡은 2부 행사는 용마코스 멤버 중 44회로 구성된 중창단 ‘라운아제’의 축하공연과 경품행사 및 행운권 추첨으로 짜여졌다. 사회자 김 동문의 유머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폭소가 연발했다.

특히 행운권 추첨에 46회가 내건 상품이 1등 100만원(1명), 2등 50만원(1명), 3등 30만원(2명) 상품권을 비롯, 액수로 총 445만원에 달해 집행부의 ‘통 큰’ 기획을 보여주었다. 행운권 추첨까지 행사 중간에 귀가한 이는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게는 다양한 기념품이 든 백이 전달되었다.

뒤풀이 3부 행사는 중구 비프광장 ‘레인보우’ 라이브 카페에서 밤늦도록 진행됐다.

한편 46회는 이날 낮 12시 모교 경남고 투어와 오후 3시 총동창회관 방문 행사를 가졌다.

◇참석 내빈=△총동창회-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기사 18면에 넘김>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른 46회 동기가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0주년하고 40주년도 할끼제~. 한 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다.’

46회 동기가 지난 10월 29일 오후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른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내 벽에 걸린 플래카드의 글귀이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인 46회 동기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엮어갈 에너지, 우정 쌓기를 역설하고 있다. 이날 46회 동기는 60여명이 모였다.

46회는 이날 축하연을 ‘추억의 30년 화합의 밤’으로 이름 짓고, 동문 선후배 내빈들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1부 행사의 사회는 서승진 동기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멋진 군 제복을 입은 윤성환(710부대장·대령) 동기생의 보무당당한 회기입장으로 막이 올랐다. 강진희 재경사무국장이 재경회장을 대신하여 개회선언을 했다.

국민의례에 이은 내빈 소개에서 46회는 대개의 홈커밍 행사 내용에 있어 중요 항목이라 할 인사 소개 순서가 없었다. 사정이 있었다. 인사찾기에 나섰지만, 이미 작고하신 분이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수소문하기가 힘들었고, 겨우 연락이 닿은 분은 개인 사정으로 축하연 참석을 고사했다.

사회자는 “한 분의 은사도 초대하지



46회 동기가 경남고에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면서 “선생님, 미워!”라며 탄식했다.

참석 내빈 한 명 한 명이 소개됐다. 내빈 수가 40여명을 넘었다.

최원석 46회 동기는 회장에서 먼저 참석 동기와 내빈에게, 그리고 행사 준비를 같이 한 집행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 모시지 못한 은사님이 못내 아쉽다”면서 “마음으로나마 이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33년 전 경남고를 배정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인연들이 특별하고 참 소중하다. 공부 잘하던 친구, 잘 노는 친구, 싸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난다.

각자의 길로 매진하여 가장으로서,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다 오늘 행사를 위해 이렇게 모였다. 친구와 옛정을 나누고 모교에 대한 향수를 함께 느끼면서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46회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축하한다. 역사에 기록된다.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고 말하고 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 수석부회장은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명문 동창회이다. 산하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총동창회는 이제 평준화시대를 맞는다. 본격적으로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다. 역대 회장이 이뤄놓은 일들을



46회 홈커밍데이 행사장에서 교가 제창하는 모습.

홈커밍데이

‘불혹’ 56회, 멋진 동기회 만들기 신호탄 쏘다

졸업 20주년...코로나·불황 속 친구 찾기 ‘만남의 축제’

“든든하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발전과 밝은 미래 전망에 어떤 의구심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지난 12월 3일 오후 영도 목장원에서 열린 제56회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한 내빈의 소감이다. 학교 졸업 후 취업과 결혼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벽찬 숨을 쉬기 위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불혹(不惑)의 나이. 이들은 졸업20주년이란 시간의 정류장 같은 귀한 만남의 축제를 가졌다.

지난 6월 3일 총동창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지 6개월 지나 첫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20명의 회원으로 창립했다가 반 년 만에 배가는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경제불황의 압박 속에서도 곳곳하게 행사를 진행시켜 온 것이다.

1부 식전행사로 스카이치어리더팀의 공연이 있었다. 젊음의 춤과 울동에 장내는 열기가 감돌았다.

회기입장, 사회자의 개회 선언, 동기회 경과보고에 이어 내빈소개가 있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기 28회 동기회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등 30여 명의 선후배 내빈이 참석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졸업20주년 행사의 의미는 크다. 불혹의 나이 이 나 이 시대에 불혹을 성취하기는 힘들다. 일일삼성이란 말처럼 매일 품성을 도야해 나가야 한다. 세상은 각자의 인격만큼 살아내는 것이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하고 협찬금을 전달했다.

장재환 56회 동기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6월 창립총회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가면서 동기회가 활성화 되어 가는 모습에 잘했다는 생각이다. 우리 모임에는 정답은 없다. 대다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 믿고 따라와 주면 고맙겠다”면서 “좋아서 오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동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협찬자 소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56회 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장재환 회장, 김대남 재경회장을 비롯하여 동기 9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은사 4명이 참석했다. 하영일(18회) 은사가 대표로 격려사를 했다. 하 은사는 “이런 날 교직생활을 한데



5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56회 동기회가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5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건배하는 모습.

해 자부심을 느낀다. 꾸중과 질책으로 엄한 선생으로 기억되는 것이 좀 후회스럽기도 하다. 앞으로 30주년, 40주년 행사도 꼭 이어지고, 자랑스런 경고인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사에게 정성어린 선물이 전달되었다.

축하 영상에서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장은 56회의 홈커밍데이를 축하하며 큰 발전을 기원했다.

축하케이크 커팅에 하영일 은사, 박종기, 장재환, 김대남, 정유석 동문이 나왔다. 하 은사가 “자랑스런 경고인”을 외쳤다.

2부 행사로 국악그룹 ‘소리줄’ 연주단의 공연 등과 경품추첨 행사가 계속됐다.

56회는 발전기금으로 경남고에 200만원, 경남고 야구부에 100만원, 총동창회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협찬(기수순·존칭 생략)=박종찬(25회) 50만원, 박종기(28회) 20만원, 김대욱(29회) 50만원, 이종휘(32회) 50만원, 허부남(37회) 50만원, 우영환(40회) 100만원, 최영준(41회) 100만원, 박동식(42회) 30만원, 탁정환(44회) 50만원, 김상수(45회) 3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정유석(51회) 100만원, 김지운(52회) 50만원, 김권우(53회) 50만원, 조중완 50만원, 고지현(이상 54회) 10만원, 장지훈 100만원, 전민기(이상 55회) 100만원, 장재환 200만원, 김대남

200만원, 강병수 100만원, 강동현 100만원, 임동섭 30만원, 이준희 30만원, 김경진 13만원(이상 56회), 총동창회 50만원, 46회 동기회 200만원, 54회 동기회 50만원, 55회 동기회 100만원, 경미회 30만원, K-청마회 100만원.

◇물품협찬=총동창회 모교배지, 쇼핑백, 후드티, 개교80주년 기념우표 엠블럼 등 기념품, 한수열(40회) 키프트카드 50만원, 정용중(42회) 이가한우 20만원 상품권, 구자삼 메로 5세트, 조태성(이상 45회) 건어물 5세트, 정경훈(47회) 과일바구니 1개, 이대호 사인볼 12개·베트 1개, 장지훈(이상 55회) 상품권 30만원, 장재환 구이전문식당 ‘쪽대장연산점’ 3만원권 10장, 김대남 화장품 3개·건강보조식품 12박스, 이승민 입주청소50% 할인권 2장, 강지훈(이하 56회) 로케익 50개·샤인머스킷 10박스, 김선철 가스텔바작 선글라스 5개, 강병수 골프화 2개, 오민일 흑돼지 5세트, 오문영 쿠쿠밥솔 1개, 이동건 영상편집 재능기부, 최준용(74회) 사인볼 24개.



5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 장전경.

홈커밍데이

36회, 홈커밍데이 성공 위한 '대단한 정성'

각종 이벤트 개최해 사전 분위기 띄워

36회 동기회는 12월 17일 오후 6시 서면 롯데호텔에서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르면서 사전 분위기 띄우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별산행, 당구회장배 당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를 10월 말부터 차례로 11월 말까지 열었다. 개별 행사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았다.

■ 특별산행

○...36회 동기회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 및 주산지를 '졸업 40주년 기념 특별산행'이란 이름을 붙여 다녀왔다. 오전 6시 40분 서면역에 집결해 일정을 시작했다. 35명의 동기생과 부인 7명 등 모두 42명이 참여했다.

최재혁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산행대장 정병기 KN36 산악회 회장은 나이가 인생의 큰 변환점을 맞는 시기인 만큼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주왕산의 가을 단풍 정취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은 이날 지난 40여 년 전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삼삼오오 즐거운 담소와 맛난 식사를 즐겼다. 돌아오며 신나는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김용진 동기의 사회로 경남고 36회 동기간에 화합을 위한 회고 시간도 가졌다. 행복한 여정이었다.

◇참가자=곽상호 김동기 김동현 김상필 김수용 김용진 김중백 김종일 김창일 김호영 맹경태 박형출 성귀호 손진규 송준호 안재익 양호진 우한주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이필이 장상욱 전영목 조성영 최상도 최태섭 한만준 김경무(+1) 김한교(+1) 이상권(+1) 장창용(+1) 정병기(+1) 정윤희(+1) 최재혁(+1).

■ 당구회장배 당구대회

36회 졸업 40주년 기념 당구회장배 당구대회가 지난 11월 19일 충동창회관 내 당구장에서 열렸다. 31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13명의 동기가 관전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 30만원)은 김동일·김한교 팀이, 준우승(상금 20만원)은 김규선·이상권 팀이, 3위(상금 10만원)는 김덕주·김호욱 팀이 각각 거머쥐었다. 패자부활전 우승(상금 20만원)은 김

경찬·맹경태 팀이 차지했다.

◇협찬=이필이 100만원, 최재혁 20만원, 김규선 20만원, 맹경태 20만원, 이하 각 10만원-곽상호 김경무 김수용 김종일 김한교 김호영 김호욱 박영찬 박재영 성귀호 손진규 안재익 양호진 오정광 이규진 이상권 이성호 이재형 이학수 장상욱 전영목 전현우 정병기 최상도 한형식.

◇물품 협찬=박영찬 롤케익 4개·샌드위치 40개, 김용진 썬크림 3개, 성귀호 캔맥주 3박스.



36회 동기회는 졸업 40주년 기념 특별산행으로 주왕산을 다녀왔다.



36회 동기회는 졸업 40주년 기념 당구회장배 당구대회를 열었다.

■ 스크린골프대회

36회 졸업40주년 기념 스크린골프대회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문현동 부산골프클럽스크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인근의 호포갈비 문현점에서 용마36골프회 회장 이·취임식 겸 송년회가 열렸다.

이날 회원 15명이 참가하여 우승 김수용, 준우승 안재익 동기가 각각 수상했다.

차기회장에 안재익, 총무에 전현우 동기가 각각 선출되었다. 모임참석 및 성적 등을 감안해 수여하는 2022년도 '올해의 회원상(MVP)'은 윤경준 동기가 수상하였다.

울산동기회 정례모임

36회 울산동기회 정례모임이 지난 10월 25일(화) 오후 6시 울산 남구 달동 '곱창왕국'에서 열렸다. 최재혁 부산동기회장이 특별히 참석,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울산동기들은 홈커밍데이 일정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울산동기회는 박성만 현 회장 후임에 제갈재환 동기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참석자 : 강태원 박성만 박철종 이원석 정영효 정윤희(해운대지구동창회장) 제갈재환 최재혁(36회부산동기회장)

재경동기회 4년 만에 모임

재경 36회 동기회가 지난 10월 20일(목) 4년 만에 열렸다. 많은 인원이 참석, 밤 10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12월 17일 36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관용 동기가 재경동기들을 위해 버스 대절을 협찬키로 했다.

참석자 : 강성대 김관용 김용식 김재일 남우진 박형득 성상환 우재학 윤용수 이한호 정규영 정원삼 정인석 정현준 최연호 하재철 최재혁(부산 회장)

<기사 16면에서 받음>

△경미회-박동식(42회) 회장, 강병규(43회) 수석부회장, 문지성(42회) 부회장, 감기환(47회) 사무국장 △청마회-김권우(53회) 사무국장, 조중완(54회) 재무국장 △강서지구동창회-김종규(31회) 회장, 이병훈(32회) 부회장 △사하지구동창회-허부남(37회) 회장, 신동훈(38회) 사무국장 △라운아제중창단(44회)-최현, 문형준, 김향, 안병규, 탁정환, 김경진, 박소미(반

주), 김석훈(50회·스태프) △43회-이진배 회장, 박승삼 사무국장 △45회-조태성 회장, 구자삼, 권우일 고문 △47회-배준수, 정민호 △55회-장지훈 회장, 황시우 사무국장 △56회-장재환 회장, 김대남 재경회장, 강병수, 강지훈, 김영준, 임동섭 부회장, 김경모 사무국장, 이승민 사무차장 △야구부-전광열(44회) 감독 △덕형리그-김경곤(38회) 사무국장. ◇협찬(현금)=박종찬(25회) 50만원, 이

종휘(32회) 20만원, 최영준(41회) 30만원, 박동식(42회) 30만원, 이진배(43회) 20만원, 안병규 50만원, 탁정환(이상 44회) 100만, 권우일 50만원, 김상수 100만원, 조청래 20만원(이상 45회) 감기환(47회) 20만원, 충동창회 5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50만원, 강서지구동창회 20만원, 경미회 30만원, 경미회 친목교류 30만원. (물품)=정용중(42회) 이가한우 5만원 상품권 6장, 구자삼 매로선물세트 10개, 조태성(이상 45회) 어포선물세트 10개,

윤성환 조종사선글라스 5개, 전은전 골프공·수건·우산세트, 박수진 양수성 김희택(이상 46회) 윈두커피세트 150개, 배준수(47회) 100만원 상당 피부관리권, 충동창회 모교개교 80주년기념 엠블럼 30개, 후드티 10장(총 110만원 상당). (화환)=김대욱(29회) 충동창회장, 임태영(40회), 경미회 친목교류, 용마코러스,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사하지구동창회, 해운대지구동창회, 경남고 회계사 모임, 42·44·47·55회 동기회, K청마회.

용마골프회 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우승 전삼록(41회), 메달리스트 박성영(53회) 동문

8개조 32명 참가 열띤 승부

제3회 용마골프회 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 연기'라는 곡절을 겪고 지난 10월 17일 오후 경남 울주군 서생면 소재 '더 골프CC'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9월 19일 대회 예정일에 태풍 '남마돌'이 엄습, 불가피하게 대회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8개조 32명의 동문 회원이 참가, 기량을 겨루며 우정을 다졌다.

이날 대회 개막 10분 전 단체촬영에 이어 이동근(33회) 용마골프회장,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의 시타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후 오션, 로키 코스를 7분 간격 조별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는 74타를 친 박성영(53회) 동문이였다. 우승은 전삼록(41회), 준우승 정재형(38회), 3위 송중헌(33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니어리스트는 0.9m의 이종휘(32회), 롱기스트는 250m를 날린 김규용(39회) 동문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밖에



▲제3회 용마골프회 회장배 골프대회가 3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3회 용마골프회 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메달리스트 박성영(53회-왼쪽) 동문과 우승자 전삼록(41회) 동문이 수상하고 있다.

다파상 김경곤(38회), 다보기상 구동주(38회), 다버디상 서석권(35회) 동문이 수상했다. 행운상은 김종엽(39회) 동문 외 6명이 누았다.

시상식은 클럽 스타트 하우스 2층에 준비된 연회장에서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 자리서 이 용마골프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태풍으로 대회가 한 달 가까이 연기되어 참가 동문들의 개인 일정이 영

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되었지만, 이렇게 대회를 성공리에 잘 치르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참가동문들의 열정과 성원이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마의 밤 등 연말까지 남은 행사에도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총동창회 수석부회장도 참석자들

에게 인사를 했다. 축제의 분위기가 된 행사장은 우정과 자긍심으로 가득했다. 오후 9시 30분이 넘어서 행사가 종료되었다.

◇행운상=△상품권-김종엽(39회) △이가한우 이용권-이문열(29회) 윤상현 이윤조 박태중(이상 33회) 김원철(38회) 배봉건(44회).

◇참가자=김대옥 이문열(이상 29회) 김종규 천장호(이상 31회) 이종휘(32회) 김재도 박용득 박태중 송중헌 윤상현 이동근 이윤조 주기훈(이상 33회) 서석권(35회) 구동주 김경곤 김원철 박정민 이수관 정재형(이상 38회) 김규용 김종엽 하순호(이상 39회) 배병훈 안성호 한수열(이상 40회) 전삼록(41회) 배봉건(44회) 권유찬(48회) 김정현(50회) 김민철(52회) 박성영(53회)

◇협찬(직책 생략)=박종찬(25회) 50만원, 김대옥 50만원, 박동혁(이상 29회) 30만원, 이종휘(32회) 50만원, 이동근 110만원, 박명진 상품권100만원, 최웅남 50만원, 박태중 30만원, 김윤성 30만원, 박창완(이상 33회) 30만원, 이진호(34회) 30만원, 서석권(35회) 30만원, 김경곤(38회) 30만원, 정재우(50회) 3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30만원, 덕령리그 30만원, 경야회 50만원, 경미회 30만원, 정용중(42회) 이가한우 이용권 30만원.

경미회, '인생 벵글' 위한 '굿 샷' 제3회 골프대회서 구성원 결속력 강화

제3회 경미회 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해운대비치CC에서 열렸다. 만추의 그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경미회 골퍼 등 23명의 '용마'가 대회에 참가했다. 6개팀(집행부+총동창회, 5개 분과) 분과대항전으로 펼쳐졌다. 경미회 외 참가자는 김경곤(38회)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을 대신해서 참가했다.

오후 1시 단체사진을 찍고 바로 경기에 들어갔다. 경미회는 골프대회를 통해 구성원 결속력 강화를 기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시상식과 회식 장소인 용호동 이가한우로 향했다. 시상식 장소에 일찍 자리 잡은 회원 등이 선수들을 맞이했다. 참가 선수 대부분이 시상식에 참석하자 감기환(47회) 경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식이 시작됐다. 총동창회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과 이 수석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참 좋았다. 단체 부킹에 박종찬(25회) 경미회 명예회장과 박명진(33회) 동문의 도움이 컸다. 감사하다. 열심히 해서 모임의 '디딤돌' 이상

이 되겠다"면서 '골프는 싱글, 인생은 벵글'이라는 건배사를 날렸다.

이 수석부회장은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든든한 경미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자랑스럽고 자신감을 준다. 조직체를 더욱 단단하게 하여 총동창회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하고 개인 협찬금을 전달했다.

이어 대회 성적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다.

단체전 1위는 대외협력분과(상금 30만원), 2위는 사회공헌분과(20만원), 3위는 미래발전분과(10만원)가 차지했다. 개인 메달리스트는 77타의 박성영(53회, 기프트상품권 10만원), 개인 신페리오 우승은 71.2점의 전삼록(41회,) 동문이 거머쥐었다. 니어리스트 1.1m 한수열(40회,골프공 1다즌), 롱기스트 277m 이재광(46회,), 행운상 김지운(52회, 기프트상품권 10만원) 동문으로 발표됐다.

시상에 이어 경품 추첨이 열려 참가자 22명이 모교 개교80주년 기념우표 앰블럼, 후드티, 골프공 등을 쟁겼다.

이 자리서 이번 대회 협찬자 중 최영준(41회) 고문이 대표로 격려사를 했다. "경미회 모임은 건전하고 건강해야 한



▲제3회 경미회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경기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3회 경미회 골프대회 단체전 1위를 한 대외협력분과 회원들.

다. 구성원끼리 서로 아끼고 도와줘야 한다. 선배는 선배답게, 후배는 후배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자. 튼튼하고 내실 있게 모임을 성장시켜 가자"고 말했다.

현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용마의 밤' 행사에 경미회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을 호소했다.

김대영(43회) 수석부회장의 건배사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건배사는 "밀고, 나가자"였다. 이날 뒤풀이 행사가 4차까지 이가한우 루프탑에서 벌어졌다.

한편 경미회는 12월 15일 서면 홍류단에서 3년 만에 송년회를 갖는다.

◇협찬(존칭 생략)=박종찬(25회) 50만원, 김대옥(29회) 50만원, 이종휘(32회) 30만원, 한수열(40회) 삼성기프트카드 10만원*3매+2차 회식비, 최영준(41회)

50만원, 박동식(42회) 50만원, 정용중(42회) 3차 회식비, 구자삼(45회) 30만원, 총동창회 모교 개교80주년 기념우표 앰블럼 10개+후드티 10장(총 80만원 상당)

◇골프대회 참가자=김경곤(38회) 배병훈 임태영 한수열(이상 40회) 전삼록(41회) 박동식 정용중(이상 42회) 강병규(43회) 배봉건(44회) 구자삼 김상수(이상 45회) 서승진 이재광 최원석(이상 46회) 감기환(47회) 김민기(49회) 김정현 정재우(이상 50회) 김지운 한중현(이상 52회) 박성영 황종민(이상 53회) 정준섭(54회) △시상식에만 참석=현응열(29회) 이종휘(32회) 윤원욱(39회) 최영준(41회) 문지성(42회) 김대영(43회) 손창오(45회) 김백권 신정일(46회) 박보순 오성진(이상 51회) 고지현(54회).



용마산악회가 100대명품산행 해단식과 낙동정맥 종주산행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용마산악회, 낙동정맥 첫 산행 “안즐편”

운문령~배내재 구간 54명 참가...영남알프스 단풍 즐겨

100대 명품산행 해단식 100여명 모여

용마산악회가 지난 11월 13일(일) 낙동정맥 종주 첫 산행을 가졌다. 1차 산행은 운문령~배내재 구간이다. 지난 10월 9일 엄광산 정기산행을 마치고 부산진역 옆 협성뷔페에서 가진 100대 명품산행 해단식과 낙동정맥 종주산행 발대식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회원 및 동문가족 54명이 참가, 운문령~쌀바위~가지산~중봉~석남고개~능동산~배내재 코스를 ‘안즐편(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산행을 했다. 최초엔 45인승 한 대로 진행하려다, 산행 희망자가 많아져 중형버스를 추가했다.

지난밤 내린 비와 흐린 날씨에 가스까지 끼는 등 일기불순 상태라 진행속도에 어려움도 있었다. 가지산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점심을 먹고 중봉으로 내려왔어야 햇살을 맞았다. 영남알프스의 가을 단풍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산행 후 가지산온천에서 목욕 후 근처 식당에서 매기 매운탕으로 회식을 했다.

◇협찬=정준수(15회) 고문 30만원, 하영수(17회) 고문 200만원, 김법영(33회) 고문 100만원, 서석권(35회) 회장 100만원, 이동희(36회) 수석부회장 36만원, 서동욱(37회) 재에틀란타 경남중고동문회 총무 10만원, 백기현(39회) 부회장 30만원, 이종민(41회) 사무국장 30만원, 유상일(51회) 간사 10만원.

한편 100대명품산행 해단식과 낙동정맥 종주산행 발대식은 용마산악회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 행



용마산악회가 낙동정맥 종주 첫 산행을 운문령~배내재 구간에서 가졌다.

사였다.

용마산악회는 10월 9일 오전 경남고에 집결하여 구봉산과 엄광산을 오르는 정기산행을 마치고, 행사장인 협성뷔페에 도착해 식사 후 행사를 진행했다. 산행 직전 집결지에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방문, 축하의 말과 격려금을 전했다.

100대명품산행 해단식 행사는 참석자 소개로 시작됐다. 동문 및 가족, 총동창회 인사 등 102명이 자리했다.

서석권(35회) 용마산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잘 이끌어왔다. 지난 7월 3일 대암산을 마지막으로 100대명품산행이 종료되었다. 12년 걸렸다. 산악회 선후배 동문들의 성원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초대 단장인 박수갑(23회) 고문은 인사에서 “100대 명산 산행 12년 무사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00대 명품’으로 이름 지었고, ‘안즐편’이란 산행 모토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낙동정맥 산행은 힘들지만 해볼 만하다며 많은 동문의 참여를 요청했다.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위대한 여정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드린다. 마지막 산행에 참가해 영광”이라면서 낙동정맥 산행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김법영(33회) 100대명품산행단장의 산행보고(보고 내용은 동창회보 제442호 14~15면 참조), 김종만(33회) 총무의 결산보고, 선물전달식(공로가 많았던 회원 10인 선정)이 진행됐다.

◇협찬=서석권 회장 50만원, 사모(35회)산악회 50만원, 이종휘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20만원, 총동창회 격려금 30만원.

협찬 내용 소개 후 계속해서 낙동정맥 발대식이 열렸다.

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백두대간에 이어 100대명품산행도 잘 끝났다. 낙동정맥 산행도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하고 산행대장으로 문상현(41회) 동문을 임명했다.

문 대장은 이 자리서 산행 개요와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산행은 3년 소요 예상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연 8회 실시 계획을 잡았다.

단체 기념촬영으로 이날 공식 행사는 끝났다.

K-청마회, 야구대회 열어 친목다져

K-청마회 제1회 친선야구대회가 지난 11월 5일 오전 경남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50회 이후 기수 모임인 청마회는 이날 홀·짝수 기수 청백전을 벌여 짝수 기수 첫 승리 기록을 남겼다.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강서구 명지의 정원오리촌 식당에서 시상 및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과 허부남(37회) 사하지구동창회장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신동훈(38회) 사하지구동창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박 고문은 이날 58.6도의 싱글 몰트 위스키 2병을 가져와 참가자들에게 권유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정재우(50회) 청마회 회장을

대신하여 정유석(51회) 수석부회장이 참석자들에 대해, 선수단 추리닝을 제작·기증한 허근영(52) 동문에 대해, 그리고 60대 기수 후배들의 참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내년 회장으로 취임하면, 열정적인 K-청마회를 만들겠다. 총동창회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청마회이다. 60~70대 기수 후배들 많이 참여토록 하여 영원한 청마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 자리서 “경남중고의 역사와 전통, 과거 영광들을 계속 이어가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면서 “청마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각 대학에 ‘청마회지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



K-청마회가 제1회 친선야구대회를 열었다.

학생 후배까지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허 사하지구 회장은 “내년에는 가족까지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키웠으면 한다”고 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청마회는 이날 박 고문과 부인 문영희 여사를 명예회장, 또 허 사하지구 회장과 부인 김은형 여사를 명예부회장으로 위촉하고,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야구대회 MVP로 홀수 기수 황

시우(55회), 짝수 기수 오신욱(56회) 동문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제일 막내인 한민(62회) 동문이 특별상, 딸까지 데려와 응원한 이재진(54회) 동문이 응원상을 받았다.

이어 각 기수별로 참가자 자기소개가 진행되었다.

◇협찬=박종찬 50만원, 이종휘(32회) 50만원, 허부남 100만원, 정신(47회) 50만원, 김민철(52회) 50만원, 허근영 선수단 추리닝.

“가슴 확 펴고 아름다운 건설인 되자”

용건회,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회...‘동반성장’ 기원

경남중·고 건설인 동문 직능단체인 용건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그간의 발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2월 1일 오후 중구 영빈관식당에서 열린 ‘용건회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회’에 30여 명의 회원 및 내빈이 참석했다.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30주년이란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든든한 회원들의 참여에 뿌듯하다. 총동창회에도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 총동창회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류종우(18회) 고문이 수상했다. 수상자 장상진(16회) 고문은 이날 불참했다.

‘창립 30주년 회고’를 맡은 류 고문은 출범 당시의

과정을 소개하고 “झे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확 펴서 삶의 의미를 좀 더 크고 넓게 펼쳐가는 아름다운 건설인이 되자”고 말했다.

최고참 회원으로 60대 같은 올해 팔순의 박찬호(15회) 고문이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배사를 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강평민(58회) 동문이 인사했다. 강동문은 크레인 및 건설기계장비 기업 대표로 활동 중이다.

행사 기념선물로 참석자들에게 고급 와인과 볼펜을 전했다.

◇협찬=총동창회 30만원+후드티셔츠 10벌 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 동창회 회장 10만원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

석부회장 20만원 이병훈(32회) 고급 볼펜.
 ◇참석자=△회원-박찬호(15회) 류종우(18회) 오경석(20회) 이규봉(23회) 이영학(26회) 정순길(30회) 류명석(31회) 박성철 이동영 정현상 장기호 이병훈(이상 32회) 최웅남(33회) 박철웅 손병걸(34회) 서은식 김종엽(이상 39회) 김인수 전삼록 김신욱 이양걸 황정후 김영철(이상 41회) 장일천 강인호(이상 42회) 진상영(45회) 이충현(49회) 구대서 신현식(이상 51회) 김권우(53회) 강평민(58회) △총동창회-현응열 김종명(이상 29회) 예동해(32회) 윤원욱(39회).



용건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회를 지난 12월 1일 가졌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덕경회가 4차 회원업체 방문 행사를 ㈜스타자동차 자동차에서 가졌다.

덕경회, 스타자동차 방문 행사

유재진(22회) 회장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할 터”

새로 출범한 기업인 CEO모임인 덕경회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4차 정기모임 및 4차 회원업체 방문행사를 가졌다. 행사 장소는 유재진(22회) 덕경회 고문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스타자동차였다.

유 회장은 사옥 2층 전시장과 회의실 공간을 고급스런 분위기의 모임 장소로 만들어 방문 동문들을 환영했다.

박종찬(25회) 덕경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성어린 환대에 대해 유 회장에 감사의 박수를 참석자들에게 청했다. 박 회장은 그간의 방문행사를 요약 설명하고, 참

석자 중 주요 인물들을 소개했다. 장인화(35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겸 덕경회 사무국장, 우영환(40회) 경미회 초대회장 등이 인사했다.

이어 스타자동차의 김철회 상무(영업본부장)가 회사 현황을 브리핑했다. 임직원 구성, 전시장, 판매 실적 및 매출액, 사회공헌활동 등 4가지 핵심키워드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완벽한 브리핑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덕경회는 이 자리서 감사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유 회장이 기업 경영과 동창회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유 회장은 “올해 창립 25주년이다. 창립 첫째 18대의 차를 팔았다. 올해 판매량이 4천대를 넘어설 것 같다. 그만큼 사회가 급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경회가 제대로 발전하여 동창회서 중추적 모임이 되길 바란다. 후배 여러분들의 선배 예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덕경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장 상의회장은 유 회장의 지도력과 봉사 활동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동문 기업이 협조가 필요할 시 성의껏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도시락 식사를 하면서 부산 ‘육호’오케스트라의 연주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박용현(31회) 동문이 신규회원으로 참석, “모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경회는 오는 12월 26일 송년회 및 견학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참석자(준칭 생략)=유재진(22회) 박종찬(25회) 김종명(29회) 정순길(30회) 박용현(31회) 이종휘 백영태(이상 32회) 박명진 이동근(이상 33회) 장인화 김재성 정운성(이상 35회) 양호진 이창(이상 36회) 허부남(37회) 구동주 조용철 신동훈(이상 38회) 백기현 하순호 윤원욱(이상 39회) 김춘강 우영환(이상 40회) 윤종진(41회) 박상욱(42회) 강병규 박형규(이상 43회) 안병규 탁정환(이상 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삼수 조태성 최상배 최재근(이상 45회) 김백권(46회) 정유석(51회) 김민철(52회) 이원준 황종민(이상 53회) 최준용(74회).

용마언론인클럽, ‘생탁’ 제조장 견학



경남중고 부울경 용마언론인클럽은 지난 10월 17일 오후 정례모임으로 사하구 소재 부산탁약주제조협회(생탁) 장림제조장 견학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날 견학행사는 생탁 대표로 재직 중인 강병규(43회) 동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열(23회) 이상룡(24회) 배정우 최상규(이상 31회) 조선(34회) 정윤희(36회) 강병규(38회) 이태욱(40회) 정홍준(42회) 고달우(47

회) 동문 등 10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날 강병규 동문은 탁주 제조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하며, ‘국민주류’ 탁주 제조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자긍심을 표출했다. 참가자들은 탁주 관련 지식들을 보다 소상히 접하고, 탁주의 세계시장 진출을 기원했다.

견학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강병규 동문이 협찬했다.

야구이야기

‘겨울야구’ 진수 펴며 모교 야구발전 기원 잔치

야구후원회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 개최...후원 증대 희망



야구후원회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벤트 야구대회 종료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2022년 야구후원회의 밤 및 2023년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2월 3일 오후 경남고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올해 초 재출범하고 처음 갖는 자축연 의미와 함께 내년에도 많은 동문의 후원 참여 기대라는 희망의 축제였다.

1부 행사는 경남고 야구부 졸업생(OB)과 재학생(YB) 간에 펼쳐진 ‘우정의 열전’이었다. 조용철(38회) 야구후원회 실무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OB선수들의 소개가 있었다. OB 코칭스태프는 감독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코치 이상훈 원동중 감독, 김상욱(이상 53회) 경남중 감독이 맡았다. 참가 선수는 이대호(종합방송인) 고윤성(이상 55회·마산고 감독) 류은재(56회·경남고 코치) 김민하(61회·경남중 코치) 장성우(62회·KT) 심창민(65회·NC) 김유영(67회·LG) 박웅(70회·두산) 이승호(키움) 문상인(이상 71회·KT) 최민준(SSG) 예진원(이상 72회·키움) 윤준호(두산) 김건(이상 73회·한화) 이정우(74회·롯데) 김창훈(75회·롯데) 노운현(76회·키움) 신영우(NC) 손민석(KT) 김정민(이상 77회·SSG) 동문 등이다.

이대호 동문이 축사를 했다. 이 동문은 야구후원회의 밤을 축하하고, 후배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하여 훌륭한 선수가 되길 기원했다.

이날 경남고 운동장은 보기 드문 ‘겨

울야구’의 진수가 전개됐다. 시구는 유재진(22회) 야구후원회 회장, 시타는 박종찬(25회)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경기는 선후배간의 대결이었지만 양보 없는 한판 승부였다. 운동장 스탠드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 그리고 2023년도 경남고 야구부 신입생들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관전하며 응원했다.

이날 스탠드 한쪽에서는 프로선수들의 사인볼과 사인배트 현장 판매가 경기 중에 진행되었다. 운동장에는 야구경기 생중계가 울려 퍼졌다. 김경진(44회) 전문 MC와 심세준(56회) 센텀중 야구부 감독이 주거니받거니 유머스러운 생중계로 관전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열정의 응원가(應援家)’ 구자삼(45회) 동문은 스탠드의 동문들을 정렬시키고, ‘후라 경고’를 한 수 지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기는 추운 날씨 탓인지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결국 0대0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다. 우승 상금 200만원은 100만원씩 나눠 가졌다. OB팀은 상금을 YB팀에 격려금으로 증석 기탁했다.



야구후원회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경남고 체육관 모습.

경기 중간 3회전을 마치고 홈런레이스가 있었다. 각 팀 3명의 선수가 도전했다. 우승(상금 30만원)은 YB팀의 송준영(외야수) 선수가, 준우승(상금 20만원)은 OB팀의 김건(김현민) 선수가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의 MVP(최우수선수)에 류은재 경남고 코치가 선정됐다.

상금은 6명-유재진(22회) 박종찬(25회) 이윤조(33회) 허부남(37회) 조용철(38회) 안병규(44회)-의 동문이 각 10만원씩 각출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체육관으로 이동, 2부 행사에 들어갔다. 장내 정리가 완료되고 김경진 동문의 사회로 오후 4시 막이 올랐다.

유 야구후원회장이 개회선언을 겸한 인사말을 했다. 유 회장은 학교와 코칭스태프에게는 야구선수들이 기량 향상도 중요하지만, 덕목을 제대로 갖추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생 환영에 이어 선수들에게 2가지를 부탁했다. 첫째는 학생 신분임을 잊지 말고 야구도 잘하되 지적 성장에도 노력할 것, 둘째는 부모님을



경남고 야구부 졸업생(OB)과 재학생(YB) 간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재학생 관중.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주문했다.

야구후원회 임원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비롯, 사무국 인사, 야구후원회 부회장단, 덕형리그 집행부, 경남고 야구부 출신의 지도자 등 내빈 소개가 있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축사에서 “황금사자기 우승은 동문들의 간절한 열망과 후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좋은 소식 몇 가지를 말했다. 프로야구에 재학생 5명, 졸업생 2명 진출, 청소년국가대표에 3명 선발, 김범석 선수 2022 아마추어 스타대상 수상, 전광열(44회) 감독 김일배지도자상 수상 등이다. 백 교장은 “야구선수들이 나중에 멋진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방안을 모색 중이다. 코칭스태프에 무한한 신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야구후원회 설립 과정에서 동문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연대 및 참여의식이 한 단계 상승됐다”면서 더 많은 후원회 참여와 기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동문으로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이 자리해 “야구메카 도시 부산의 역할을 강서가 감당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감독은 “선수들을 잘 지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야구후원회 경과보고를 박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야구부 소개에서 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신입생과 1, 2학년생이 연단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용마코러스의 특별축하공연, 교가제창 및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행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이날 사인볼 120개·배트 70자루를 판매, 64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 유 회장은 500만원과 우산 300개를 협찬했다. 박수석부회장은 야구후원회 수첩 제작비 300만원을 쾌척했다.

노브랜드배 16강으로 ‘만족’ 경남고팀, 군산상고에 완패

지난 10월 15일 오전 천안북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신세계 그룹 이마트 주최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 본선 16강전에서 ‘경남고등학교 OB덕형’은 군산상고에 1대6으로 패해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로써 지난 5월 28일 ‘상견례 및 첫 연습’으로 시작된 약 150일간의 이번 대회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정신(47회) 동문, 경남고 야구부 격려 만찬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인 정신(47회) 동문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대한통운빌딩 내 시즈뷔페에서 2023년 동계훈련을 대비 중인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초청만찬을 열었다(사진).

이 자리에 47회 동기생, 경야회 조용

철(38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장순재(47회) 남구리틀야구단·이정우(51회) 원동중·김상욱(53회) 경남중·이상훈(53회) 강서리틀야구단 감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 동문은 전국중학야구대회 우승팀인 센텀중(감독 심세준·56회)



과 원동중(감독 이정우·51회, 코치 오승우·65회)을 방문, 선수단을 격려하고 우승 기념품을 전달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린 가을의 꽃은 청초한 모습으로...



9~11월

— 배움터 지킴이 정호균씨 촬영



가을의 산길은 대체로 메말라 있다. 수목들은 마른 가지에 형형색색의 낙엽을 품고 있다. 대지 위로 떨어진다. 이즈음 산야의 야생화는 풍성한 자태보다는 청초한 모습들이 많다. 그런 만큼 봄꽃보다 조금 오래 피어 있다. 비가 덜 오니 그럴 수도 있겠다. 곧 닥칠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할는지? 모교의 정원과 뒤뜰(산자락)에도 자연의 순환법칙은 엄연하다. 가을의 야생화에서 내년 봄꽃들을 기약한다.



누린내풀

마편초과, 여러해살이풀

식물체 전체에 짧은 털이 있고, 꽃이 필 때 고약한 냄새가 나는 누린내풀은 노린재풀이라고도 한다. 7~8월에 하늘색을 띤 자주색 꽃이 피는데 줄기와 가지 끝에 원뿔형으로 달린다. 피임제, 이노제, 기관지염, 복통에 약으로 쓰인다고 되어있다. (2021.9.1. 촬영-체육관 뒤편 숲 속)



참취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8~10월에 흰꽃이 피는 참취는 흔히 취나물, 나물취라고 한다. 취나물 종류 가운데 맛과 향이 빼어나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어서 으뜸 나물이라고 참취다. 부드러운 잎과 어린 순을 무치거나 삶으로 먹는다. 데쳐서 간장이나 된장에 무치기도 하고, 된장국도 끓인다. 썰어서 부침개를 해도 맛있다. 뿌리는 약재로 쓰며 진통, 해독의 효능이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2021.9.6. 촬영-분리수거장 뒤쪽 텃밭)



싸리

콩과, 낙엽활엽관목

한자로 소조(掃條)인데 싸리 빗자루로 잘 알려져 있다. 유사종이 여러 가지이다. 여름이 지날 때쯤 연자주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늦가을 서리 오기 직전까지 오래도록 꽃이 피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밀원식물(蜜源植物)이며, 예전에는 겨울에 딸감으로 많이 이용했고, 어린 잎을 데쳐서 나물로 먹었다고 한다. (2021.9.6. 촬영-국산관 뒤편 언덕)



석산

수선화과, 여러해살이풀

중국 이름 석산을 차용한 상사화의 일종인 석산은 흔히 꽃무릇이라고 하며, 상사화, 중무릇, 중꽃이라고도 한다. 매년 9월 20일경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에서 꽃무릇 축제가 열리는데, 무리지어 핀 꽃무릇이 장관이다. 뿌리는 약용 가능하나 독성이 심하여 절대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비늘줄기를 석산(石蒜)이라 하며 약용한다. (2021.9.13. 촬영-고래상 뒤편 텃밭)



하수오

마디풀과, 덩굴성여러해살이풀

옛날 중국에 하수오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식물 덩굴의 뿌리를 캐서 말려 가루 내어 날마다 열심히 먹었는데 130살이 넘었어도 머리카락이 까맣다고 하여 그를 하수오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꽃은 8-9월에 피며 백색이고 가지 끝에 원뿔모양꽃차례에 작은 꽃이 많이 달린다. 붉은빛을 띤 갈색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하수오라고 하며 강장제·강정제·완하제로 사용한다. (2021.9.14. 촬영-교문 앞공중전화박스 오른쪽 언덕)



흰꽃나도사프란

수선화과, 상록성여러해살이풀

영어 이름이 White amaryllis인 흰꽃나도사프란은 사프란을 닮았는데 흰 꽃이 피어 흰꽃나도사프란이다. 남아메리카 원산인데 꽃을 보기 위해 화훼용으로 심어 가꾼다. (2021.9.15. 촬영-과학관 입구 왼쪽 풀밭)



이고들빼기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8~9월에 노란색 꽃이 피는 이고들빼기는 꽃잎의 끝이, 혹은 잎의 가장자리가 사람의 앞 이빨(앞니) 끝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데, 어릴 때 뿌리째 캐서 데친 뒤 쓴맛을 우려내고 초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한다. (2021.9.27. 촬영-본관에서 체육관 가는 계단 오른쪽 경사면)



산박하

꿀풀과, 여러해살이풀

이름이 산박하지만 박하 향이나 맛이 나지 않는다. 꽃은 6~10월에 파란빛을 띤 자줏빛으로 핀다.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고,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산에서 흔히 자라며, 어린 순은 나물로 먹는다. (2021.9.27. 촬영-본관 뒤편 경사면)



힌도깨비바늘

국화과, 한해살이풀

씨가 도깨비처럼 모르는 사이에 따라붙는다고 도깨비바늘이다. 줄기의 단면이 네모진다. 줄기의 단면이 네모지거나 삼각형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8~10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긴 바늘모양이며 끝에 창모양의 까락이 달려 있다. 허꽃이 없는 것은 울산도깨비바늘, 허꽃이 흰색이면 힌도깨비바늘이다. (2021.10.8. 촬영-체육관 앞 남쪽 절망 아래)



꽃향유

꿀풀과, 여러해살이풀

9~10월에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 또는 보라색 꽃이 피는 꽃향유는 꽃이 줄기와 가지 끝에 뽕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삭으로 달린다. 향유에 비해 꽃이 크고 색이 짙으며, 이삭이 크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먹을 수 있는 풀이라는 한자명이고, '노야기'라고도 한다. 어린 순은 나물로 식용하고, 전초를 향료로 이용한다. (2021.10.25. 촬영-국산관 뒤편 언덕 위)



뽕모시풀

뽕나무과, 한해살이풀

뽕잎풀이라고도 하는 뽕모시풀은 9-10월에 꽃이 피며 녹색이고 원줄기 또는 가지의 잎겨드랑이에 많은 꽃이 달린다. 한글명 뽕모시풀은 일본명 구와쿠사(桑草, 상초)에서 유래한다고 되어 있다. 잎은 깻잎과 닮았는데, 먹는 풀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2021.10.26. 촬영-덕현관 왼쪽 운동장 진입로 근처의 벽오동나무 아래)



소국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역사가 가장 오랜 꽃이며, 사군자의 하나로 귀히 여겨왔다. 국화는 꽃 송이의 크기에 따라서 소국, 중국, 대국으로 나뉘는데, 소국은 꽃송이가 작은 국화를 말한다.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며, 많은 원예 품종이 있다. 꽃 색깔은 노란색·흰색·빨간색·보라색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고 크거나 모양도 품종에 따라 다르다. (2021.11.9. 촬영-신관 입구 왼쪽 돌담 위)

자원순환 리더십 도전대회 우수상 수상

경남고가 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제 12회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순환 도전대회에서 우수상(부상 문화상품권 30만원)을 수상했다. 참가 학생은 2학년 김정은 남인서 류연흠 최형욱 안형주 홍경민 윤상준 군과 1학년 김병민 김동훈 이정용 군이다(지도교

사 조영택, 한동휘). 학생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우유팩모으기로 교환한 화장지를 독거노인들께 기증하기, 폐의약품 모으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로깅(plogging·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 등을 해왔다.



사회참여발표대회 부산시교육감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제13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2학년 학생 5명(류연흠 남인서 김정은 홍경민 최형욱)이 부산대표로 선발된 후 지난 11월 5일(토) 전국대회 본선대회에 참가,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지도교사 조영택)(사진).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전교생이 참여하는 자원순

환프로젝트 활동 중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우유팩모으기를 통해 서구청에서 교환한 화장지(우유팩 1.5kg당 화장지 1개로 교환)를 이태석 신부 생가 근처의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실천적 역량을 확장시킨 우수함이 인정되었다. 2017,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EBS 특집다큐에 환경 토론 방영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 10분에 방영된 EBS 교육방송 특집 다큐멘터리(45분) '나는 청소년 시민이다'에 경남고 사례가 방영되었다. 과자 과대포장 관련 토론 수업 내용 등이 나온다. "분쟁만큼이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수업도 다채롭다. 과자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토론"하는 내용이다. 참가 학생은 3학년 류승재 정원우 장민규 이희찬, 2학년 남인서 류연흠 김정은, 1학년 김병민 군이다.

3학년 응원하는 '수능 장도식' 가져



경남고는 지난 11월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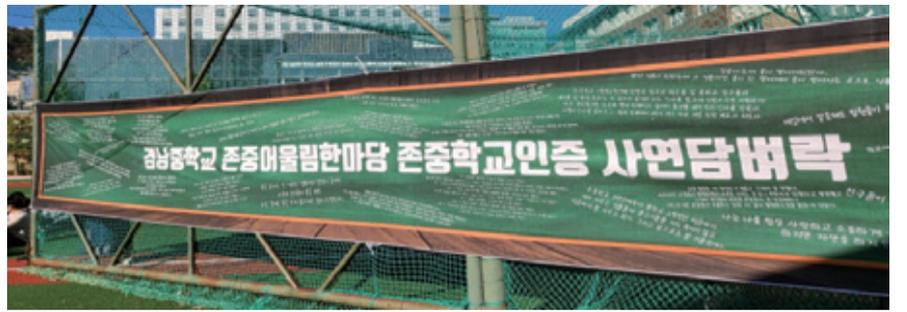
3학년 재학생들의 '수능 장도식'을 가졌다. 이날 3학년은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 대박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격려 물품과 함께 양쪽에 늘어선 후배들의 격려 박수를 받으면

서 교문을 나섰다(사진). 1, 2학년 후배들은 3학년 선배들이 힘과 용기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경남고"를 소리 높여 외쳤고, 3학년은 좋은 결과를 다짐하는 "파이팅"으로 화답하였다.

경남고, 지진 대피훈련

경남고는 최근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전 교직

원의 지도 아래 실내 방송과 사이렌을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학생들의 대피를 유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경남중, 존중 어울림 한마당 행사

경남중은 지난 10월 20일 '2022 찾아 가는 존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서 경남중은 우수단체학교로 선정되어 존중학교 인증패를 수상했다. 수제 핫도그가 준비된 간식 푸드트럭도 배정받아 전교생이 뿌듯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미정 교장은 "이번 존중 어울림 한마당에서 우리 경남중 학생들이 응모한 사연들을 보면서 학교단체상 수상의 기쁨 이전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응모한 사연들은 이날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학교 사연 담벼락에 게시됐다(사진). 학생들은 자신이 공감하는 사연에 스티커를 붙이며 글쓰기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중은 이번 수상 외에도 지난 6월 초록우산재단에서 주관한 '제7회 전국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학교단체상을 수상했으며, 10월에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부산일보가 함께한 051영화제 '자몽프로젝트'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다.

학부모회, 깍두기김치 나누기 펼쳐

경남중 학부모회인 '경모삼천지교(三踐之教)'는 지난 11월 29일 깍두기 맛있게 담그고 이웃과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학부모 봉사요원 10명이 깍두기 김치 20



무소 동장에게 전달, 이웃의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사진).

이태석 신부 추모의 날 행사 개최



경남고는 지난 11월 25일 국산관에서 고(故) 이태석 신부 추모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재학생들은 이 신부 연계 수업을 통해 신부의 생애를 기리고, 이 신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이태석재단이사장이자 영화 '울지 마 톤즈'와 '부활'을 제작한 구수환 감독을 초청하여 이 신부의 정신을 기리는 특강을 진행하였다. 구 감독은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복음을 인용하며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한 이 신부의 삶이 사회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특히 이 신부의 정신을 기리는 재학생들의 시 낭송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큰 울림을 주었다. 추모 음악회에서 동문 선배들이 합창 공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일육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11월 20일(일) 동아대병원 앞~석탑~옥천약수터~꽃마을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후 소담식당에서 오리고기 불갈비 오찬을 즐겼다.
 참석자 :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박민소 서고명 서태복부부 손송방 안국정 이겸일부부 최정일 홍정길 황규정

18회 동기회 = 가을야유회



가을야유회가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10월 30일(일)에 실시되었다. 지하철교대역 앞에서 김길제 회장이 제공한 2대의 버스로 출발했다. 언양 시내 쪽에서 울산의 박준성 동기와 합류했다. 참가자가 17부부와 싱글 26(여1포함) 총 60명이 되었다.

힘든 코스를 피해 가지산을 바라보는 주암계곡의 임도를 걸었다. 이후 버스로 봉계의 대복식당으로 이동, 한우고기로 점심을 해결했다. 밀양한천(김길제 회장 경영) 테마파크로 이동, 간단한 쇼핑과 단체사진 촬영, 서부원 동기회장의 인사 및 공지사항 전달이 있었다.

끝으로 김길제 회장이 제공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출발지 교대역에 도착하여 행사를 마쳤다.

18회 토요일등산회 = 동남아크루즈 여행



18회 동기회 토요일등산회가 지난 10월 20~27일(6박8일) 대망의 동남아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매주 조금씩 적립한 기금에 김길제 회장의 2천만원 협찬으로 동기생 13명이 어렵사리 용기를 냈다.

여행 시작 전날 19일 함께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숙박하고, 20일 아침 스쿠트항공으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20일 저녁 17만, 지상 16층·지하 4층, 승선인원 7,173명이 떠다니는 아파트 같은 규모의 '로얄캐로비언스펙트럼'이란 긴 이름의 크루즈선에 올랐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포트 클랑, 페낭을 거쳐 태국의 푸켓 등의 육지관광과 종일 해상관광을 했다. 마지막 기항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올 때 못한 관광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출발, 27일 아침 인천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왔다.

함께하지 못한 많은 동기생들도 참여하는 졸업 60주년행사의 사전답사(?) 여행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해봤던 뜻깊은 여행이었다.

참가자 : 강덕용 김길제 김사권 김용기 김일석 김정

태 노성현 박건태 서부원 손천익 송유봉 정정돈 천두갑

20회 = 제15회 용마기별대항 당구대회 우승



지난 11월 19일(토) 서울 양재동 챔프당구장에서 거행된 제15회 용마기별대항 당구대회는 20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제2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3년 만에 탈환한 영광의 금자탑이다. 이날 20회는 A팀 오기현 양문규 서재홍, B팀 신철수 김정환 김철홍, C팀 차상목 이응직 차용환 등 3팀이 출전했다. 예선 리그를 치른 후 결승토너먼트전에서 파죽의 4연승으로, 예선전에서 1패를 당한 A팀이 30회를 결승전에서 3대0으로 제압하고 영광의 우승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을 획득하였다.

시상식 후 인근 왕삼돈에서 우승 자축 뒤풀이를 가지며 기쁨을 나누었다. 우승 2회(2009, 2022년), 준우승 3회(2010, 2012, 2014년), B그룹 우승 2회(2013, 2018년) 등 호구회의 기록을 음미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구호와 함께 오늘의 모든 행사를 끝냈다.

20회 = 가을야유회



10월 25일(화) 문경새재에서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오전 8시 40분 서면에서 출발, 11시 30분 문경에 도착했다. 허규판 동기가 운영하는 공장을 탐방했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허 동기 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끝낸 후 새재로 이동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단풍으로 곱게 물든 길을 걸어 제2관문까지 왕복하는 동안 담소를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저녁에는 문경축산농협의 약돌한우프라자에서 장상배 회장이 대접해준 한우불고기를 포식하며 서로 서로 술잔을 들어 리브샷을 했다. 4년 만에 개최한 야유회에 26명이 참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4회 산우애 = 10월 정기산행



지난 10월 6일(목) 금강공원 케이블카 승강장~케이블카 종점~제2망루~대륙봉~산성고개~동문~제3망루~제4망루~상마마을 코스로 정기산행(제242차)을 다녀왔다.

참석자 : 곽두희 김도현 김인구 안태인 안형수 손세영 장현동 정영환 조재진 최원주 태창업 황규선

24회 이사빌(당구동호회) = 11월 정기모임



지난 11월 13일(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 : 우승 한승철, 준우승 태창업, 하이런상(6점) 황성훈

참석자 : 곽두희 김경남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임덕철 장현동 정기춘 조영태 주점권 최우림 태창업 한승철 황성훈

24회 후라회(야구 동호회) = 11월 모임 개최



지난 11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부평동 풍산생갈비촌에서 11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곽두희 김경남 김도현 김인구 김민철 노상우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황성동

25회 산우회 = 11월 정기산행



지난 11월 13일(일) 해파랑길2코스(해운대~대변항)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구화 김용수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곤태

25회 기독교신우회 = 밀양소풍

25회 기독교신우회는 지난 10월 10일(월) 밀양에 소풍을 다녀왔다. 밀양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최현림(1) 동기생의 안내로 안용운, 전섭태, 최현림(2), 김덕우, 정윤철, 배동명 등 9명이 참석. <기사 26면에 넘김>

31회, 설악산 '추억여행' 1박 2일

동기 48명, 수학여행 기억 떠올리며 우정 다져

31회 동기회(회장 박경수)는 지난 10월 22~23일 설악산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동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 부산을 비롯, 경남 대구·경북, 강원, 제주 등지에서 48명의 동기생이 참가했다. 재경 등 타 지역 동기들은 내년 상반기 행사에 동참키로 했다.

22일 새벽 부산 동기들은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중간 휴게소에서 대구·경북 및 강원지역 동기들과 합류했다. 버스 안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간 안부와 학창시절 및 살아온 이야기로 왁자지껄했다. 1975년 5월 까까머리 청춘 593명이 교복을 입고 설악동으로 간 수학여행 기억이 소환되었다. 초로(初老)에 접어들었지만,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이 다시 싱싱하고 뜨거워졌다.

버스는 망양해수욕장을 거쳐 오후 1시 30분쯤 설악산 오색약수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전골 입구 '단골식당'에서 산나물비빔밥과 동동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주전골에 들어서니,

사람이 단풍이고 단풍이 사람이다. 우리는 계곡과 단풍을 눈과 가슴에 담고, 사진도 찍으며 걸었다.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인, 웅장한 설악산 암봉(巖峰)들이 단풍 숲을 뚫고 무림없이 불뚝 솟아 있다. 오후 햇살을 받은 빨강고 셋노란 단풍잎들은 꽃보다 곱다. 산길위로 떨어진 낙엽들이 오색무늬 이불이 되어, 거친 풍상에 노출된 뿌리들을 살포시 보듬어 덮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청춘의 추억과 함께 그렇게 장년의 추억을 설악산에 남겼다. 숙소(그린야드 호텔)에 있는 온천탕에서 목욕 후 강당에 모였다. 동기 이승원(해운대 'AK정형외과' 병원장)이 '의

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실버 건강상식」이란 특강을 했다.

강의 후 호텔 뷔페식당에서 '화합의 만찬'을 가졌다. 우정주(酒)가 적당히 돌고, 학창시절 선생님께 혼난 일, 도서관 위 테니스장에서 '술구'한 이야기, 주체하지 못한 기운으로 친구들과 다툰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일부 친구들은 자는 시간도 아쉬워 객실과 노래방을 오가며 밤늦도록까지 추억을 쌓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비를 맞은 주전골 숲에서 일어난 안개 사이로 우뚝 선 바위들, 암적색 및 암녹색 나무들과 산등성이들이 문득문득 보

였다. 설악산이 47년 만에 찾아온 우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선물한 멋진 수목화였다.

숙소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강릉 낙산사로 향했다. 대웅전·해수관음상·의상대를 둘러보고 흥련암에 앉았다. 1,300여 년간 맨몸으로 거센 동해바람을 받아낸 암자는 2005년 4월 양양 산불에도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영험함이 이번 행사에 참가한 동기는 물론 31회 동기 모두에게 고무미치길 간절히 기원하였다.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황정숙 막국수집'에서 막국수로 점심 후 오후 4시 경 내연산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직 단풍선(線)이 내려오지 않았다. 연산폭포까지 갔다 왔다.

해단식 장소인 보경사 입구 백숙전문 '진주식당'에 모였다. 음식은 주인의 인심만큼 푸짐했고 맛도 일품이었다. 박 동기회장이 "우정은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하고, 참석한 동기 한명 한명이 건배사를 하며 동동주보다 달고 짙한 우정을 나누었다. 모두들 술과 추억에 젖었고, 모처럼의 추억여행이 짧은 것을 아쉬워했다. 오후 7시 30분, 출발 시간을 독촉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로 향하였다. <글·사진=장성수(31회)>



31회 동기회가 1박 2일 설악산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위 사진은 47년 전 수학여행 때의 모습.

<기사 25면에서 받음>



밀양역에서 만나 영남루, 사명대사유적지를 거쳐 얼음골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 전망대에서 영남알프스 전경을 감상했다. 가슴이 뻥뚫리는 기분이었다. 중국식 저녁식사로 미각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왔다. 밀양 유적지 관람과 최현림(1)의 후한 대접으로 넉넉하고 즐거운 소풍이었다.

28테니스회 = 오랜만의 경부교류전



28테니스회(총장 김태완)는 지난 11월 12일 사상

구 소재 MJ테니스코트에서 재경28테니스회와 몇 년 만인지도 기억이 아련한 경부교류전을 갖고 우애를 다졌다. 이날 오전 부산에 온 재경선수 3명과 본부선수 7명이 접전을 벌였다. 오후 1~5시 4시간 동안에 혼합 복식으로 무려 9계임을 치렀다. 복식경기에서는 대체로 본부선수들이 약간의 우세를 보였지만, 개인 기량에서는 재경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경기 후 동대신동 소재 대성횃집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다. 경기를 참관했던 박종기 동기회장이 생선회를 협찬했다.

참석자 : △본부팀 : 총장 김태완 김상정 김정유 박재훈 배정환 이인재 허남식 G정원점 *참관 : 박종기 동기회장 김경준 조광제 28당구회장. △재경팀 : 김형교 허남진 황훈성

30회 = 경부합동 가을소풍



30회 동기회는 코로나19로 중지했던 경부합동 소풍을 지난 10월 9~10일 이틀에 걸쳐 서울동기회 주최하에 주왕산 국립공원을 다녀왔다. 주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주변의 꽃돌 박물관, 송소 고택, 주산지

등을 구경하였다. 특히 호주에서 휴가차 고국을 방문한 하용성 동기 부부도 참가하였다. (부산 회장: 윤인태, 서울 회장: 최병철. 총 참가자: 59명)

31회 북부지회 모임



31회 북부지회는 지난 11월 3일 동래 소재 '산골수육'(최광수 동기 운영)에서 3년 만에 모임을 가졌다. 18명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포를 나누고, 모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 집행부(회장 안중수, 총무 문성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동기회 회장의 금일봉 전달이 있었다.

참석자 : 권해철 김판덕 남철우 문성일 박종건 박홍배 박희암 송재용 안중수 이기범 이성식 이원철 이종만 이희준 전창수 최광수 하병관 홍동수

40회 =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회

지난 12월 2일(금) 시즈뷔페에서 40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성호 동기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기사 27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6면에서 받음>



참석자 : 강강국 김경환 김근영 김대영 김동근 김병주 김성대 김영진 김용철 김춘강 노인철 류봉식 문태영 박기엽 박승준 배병훈 배영진 서정민 신영석 안성호 염점철 예진원 옥진형 이기 이상재 이승배 이정삼 이창진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정원철 최대림 최신일 한수열

41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41회 동기회는 지난 12월 2일 오후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해운대연가 식당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영철 회장, 최영준 수석부회장, 김신욱 사무국장 등 20여 명의 동기가 모여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동기생 모두의 파이팅을 기원했다. 이날 모임에 김형찬(경남중 41회) 강서구청장이 참석, 박수를 받았다. 2차 맥주집 뒤풀이 경비는 이양걸 동기가 협찬했다.

협찬 : 김영철 회장 10만원 상품권 5장, 최영준 수석부회장 10만원 상품권 5장, 전삼록 감사 10만원 상품권 1장, 추교용 고문 마스크 200장, 김신욱 사무국장 와인 2병+KN후드티.

참석자 : 강병오 강훈 김득수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형찬 류지섭 문상현 백창봉 서상대 성찬기 안광근 윤성보 윤형배 이수기 이양걸 이정삼 이주하 장익조 전삼록 정승서 최영준 한창희 황정후

42회 정기모임



지난 10월 21일(금) 광복동 소재 금포나루 원조돌계탕집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총 33명 동기가 참석,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었다. 광창우 회장의 인사말, 고장석 산악대장의 산

행알림 및 참석독려, 그리고 와인모임인 베이스캠프장 문지성 캠프장의 모임취지 설명 등이 있었다. 많은 찬조로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열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후라경고'였다. 수많은 인파속에서 동그렇게 모여 목청이 터져 나가는 큰소리에 광복동이 초토화(?) 되었다. 2차는 노래방으로 고고싱.

K42봉 산악회



지난 11월 12일(토) 다대포 낮개역에서 봉수대까지 산행 후 물운대아파트 입구로 내려와 다대사를 경유하여 하산하였다. 뒤풀이 장소는 다대동 씨파크 2층 삼성횃집. 미리 주문한 대방어 7.5kg과 아귀 대창과 외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3차는 라브랜드 빈대떡과 막걸리집에서, 그리고 4차는 경성대로 옮겨서 여흥을 즐겼다. 산행으로 뺀 칼로리 5배를 채워 넣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 산행지로 황령산을 정했다.

42회 베이스캠프(와인모임) = 정기모임



지난 11월 8일(금) 광복동 소재 '술잔의 달'에서 와인모임인 베이스캠프를 열었다.

오마카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인삼-통영굴-별교꼬막-해물전-생선회-과메기-수육-가래떡구이(조청)-보양식 죽으로 마무리했다. 2차로 멋진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모임 주제는 '와인과 보이차의 콜라보'.

42회 임원진 모임



지난 11월 24일(목) 부평동 소재 옥생관에서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15명 임원진 가운데 11명이 참석했다. 2022년 정기총회 운영방안 및 2023년 회칙 수정 건을 두고 약 100분 동안 열띤 토론을 가졌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되어 내년에는 더

나은 동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2차 장소에서 우루과이전 축구응원을 하며 하나 된 42회를 확인했다.

43회 = 12월 정기모임



43회 동기회(회장 이진배)는 지난 12월 3일(토) 오후 대신동 조방낙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24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연회비 10만원(최소) 의무 납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 적극 참여(용마의 밤) △내년 12월 차기회장 우선 지명(류법권) △소모임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 : 강병규 강상훈 김대훈 김수민 김영재 김영휘 김진규 류법권 박경석 박승삼 배진국 심문섭 윤성진 이광렬 이정렬 이진배 이현우 이호영 전순표 정진우 정창석 정효범 최동환 허재원

45회 = 정기모임



지난 10월 21일(금) 오후 6시 해운대 좌동 예담 숲불양갈비(38회 김근홍 동문 운영)에서 20명의 동기가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김영주 김종현 손창오 신상효 이광석 이동희 정종훈 정행덕 조창래 조태성 주영기 최윤석 최윤식 최재근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5회 = 송년의 밤 열어



45회 동기회는 지난 12월 2일(금) 오후 동구 대한통운빌딩 내 시즈뷔페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48명이란 많은 동기가 참석, 2023년 동기회 활성화 기대를 갖게 했다.

<기사 28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7면에서 받음>

참석자 :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대영 김동규 김동욱 김상수 김성기 김성준 김성진 김영주 김정환 김종현 김찬호 나성태 노양호 박기완 박종호 박진영 박진환 박현승 박훈식 손창오 신상효 안형오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이상구 이성근 이장현 이정수 이좌철 이준호 장성익 정일균. 정종훈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55회 = 경주 1박 2일 수학여행



지난 10월 21~22일 경주 1박 2일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대호가 바쁜 일정 중에도 친구들과 함께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다. 장지훈 동기회장은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얼굴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말했다.

참석자 : 강문성 고윤성 권세호 김대성 김대진 김동현 김정한 김태련 김태현 김현달 김현중 박상인 박찬우 서부건 신동현 안홍식 양세동 이대호 이동규 이영훈 이욱한 이종원 이해민 이향림 장민 장범후 장지훈 전대근 전민기 정승운 최범준 최유성 한재호 허준 황보영 황시우

55회 = 정기모임



지난 11월 26일(토) 서면2번가 개미집(대표 권세호 동기)에서 37명의 동기가 모여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23년 차기 운영진 소개가 있었다. 고문 장지훈, 회장 이욱한, 수석부회장 박신현 이대호, 사무국장 전민기, 재무국장 최유성, 홍보국장 허준, 부회장 박기홍 강문성 김태현 김현중 안진영 이동규 이동주 이영훈 이종원 이해민 전대근 최범준 한재호 황시우.

협찬=이동규 썬팅, 광택유리막, PPF(200만원 상당), 한재호 소주 3박스, 정승운 청정원 선물세트 5개, 이욱한 20만원, 김태현 메가비텐 액티브정 5통, 이동주 매달 5만원, 김형식 20만원, 이대호 20만원.

참석자 : 강문성 권세호 김대성 김상수 김정현 김태현 김현중 박기홍 박범희 박상인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송정환 신용국 안진영 윤승환 이동규 이동주 이동현 이영보 이영훈 이욱한 이준호 이향림 장민 장지

훈 장현준 전민기 정규진 정승운 최경식 최범준 최유성 허준 홍수현 황시우

경남중고동문불자회(경불회) = 템플스테이



경불회(회장 정영천·21회)가 3년 만에 템플스테이 행사를 지난 11월 19일(토) 오후 서구 꽃마을 소재 내원정사에서 20여명의 동문불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가졌다.

첫날 참석자들은 템플스테이관에서 지철 법사스님의 직접지도로 불교 수행법의 하나인 위빠사나 수행의 걷기명상과 좌선수행을 하고, 저녁예불과 자비명상 체험으로 오후 9시까지 수행 정진하였다.

둘째날은 오전 4시 30분 기상, 아침예불로 시작하여 7시 아침공양 후 11시 30분까지 전날 배운 수행법들을 반복해서 실참하고, 법사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 참석 불자들의 회향을 통해 부처님 법안에서 여법하게 마무리하였다. 총동창회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자 : 이태량 장영길(이상 13회+1) 김일곤 정영천(이상 21회+1) 정영환(24회) 서정환(28회+1) 김법영(+2) 정영학(+2) 강주태(이상 33회) 서석권(35회) 윤원욱(39회) 문상현(+1) 안광근(이상 41회)

용마코스 = 경남고 후배 격려



지난 11월 25일(금) 경남고 국산관에서 이태석(35회) 신부 추모의 날을 맞아 열린 '추모 시와 함께하는 음악회'에 참가, 공연했다. 특히 모교 재학생 합창단(17명)의 부활을 축하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축가와 함께 작은 성의도 전달했다.

참석자 : 김형수(단장) 정용식 최상규(이상 31회·고문) 손수범(부단장) 전상건(이상 35회·부지휘자)

용마장학회, 류명석(31회) 동문 감사 선임



용마장학회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해운대 테베이101 대도식당에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병찬(23회) 이사를 비롯, 장혁표(8회) 옥동훈(25회) 박성철(29회) 손영태(31회) 이사, 현응열(29회) 장학회 간사가 참석했다.

심재민(38회·부단장) 박근태(39회·부단장) 안승진 백기현(이상 39회·사무국장) 최현(기획부장) 김항 탁정환 안병규(이상 44회·발전위원장) 노재훈(50회·부지휘자) 김석훈(50회·악보장) 조성빈(47회·지휘자) 박소미(반주자)

부산시 용마회 = 가을산행



지난 11월 26일 부산시 용마회 전·현직 동문이 모여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손병철(32회·퇴직) 김종오(서구 생활지원과장) 손광성(공로연수 중) 김창일(이상 36회·) 김종식(43회·시 재정혁신담당관실) 김상곤(52회·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어묵 기부 선행



익명을 요구한 44회 동문이 황금사자기 우승 모교 야구선수단과 코로나 시국인데도 응원에 참여한 재학생(7명)에게 수고들하더라고 초량본가어묵(39회 백기현 동문 운영) 선물세트 70세트를 기증했다.

북가주 동창회 송년회 개최



북가주 경고 동창회 송년회를 지난 12월 7일 큰중국 뷔페식당에서 개최하였다. 모두 12명이 참석하였다.

이용흠(19회) 김현태(30회) 임태영(40회) 이사는 위임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진행사업 보고, 각종 수지현황 및 총동창회관 임대 현황 보고가 있었다.

심의 의안으로 결원 감사 선임이 있었다. 고(故) 이재호(21회) 감사 후임으로 류명석(31회·사진) 동문이 천거돼 이 자리서 투표로 선임이 결정되었다.

이사회는 이날 2023년 예산안으로 수입·지출 8천 200만원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요즘 어떻게?

<24회>

△김구대 = 빙모상. 11월 3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발인. △김규철 = 장남 태성군 12월 3일(토) 낮 12시 30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본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정윤상 = 빙부상. 11월 23일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VIP실에서 발인.

<26회>

△김일광 = 모친상. 10월 11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4호실에서 발인. △김택영 = 빙모상. 11월 15일 부산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에서 발인. △박재창 = 빙모상. 10월 22일 부산영락공원 5호실에서 발인. △이성구 = 장녀 지영양 12월 3일(토) 오후 4시 라미리아 장로교회 본당(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혼. △정재영 = 아들 지환군 11월 13일(일) 오전 11시 50분 플로팅 아일랜드(한강 세빛섬) 2층 컨벤션홀(서울 서초구)에서 결혼. △피종호 = 딸 규영양 12월 10일(토) 오후 2시 반포 남서울교회에서 결혼.

<28회>

△서명수 = 빙부상. 11월 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옥준원

= 차남 민석군 11월 20일(일) 서울 대검찰청 별관4층 예그리나홀에서 결혼. △임광수 = 빙모상. 11월 14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임재덕 = 빙부상. 11월 13일 부산대동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주종목 = 아들 성현군 11월 6일(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HIL 하모니볼룸에서 결혼. △허남식 = 차남 세영군 11월 19일(토) 부산 해운대 마리나컨벤션웨딩홀 단독홀에서 결혼.

<30회>

△강석철 = 장남 동균군 10월 15일(토)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이비스스타일 엠베서더 7층 인스타일에서 결혼. △공영호 = 모친상. 10월 1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발인. △김용준 = 빙모상. 10월 1일 대연인창 장례식장 VIP분향소에서 발인. △김효수 = 빙모상. 10월 22일 양산농협 양산장례식장 VIP1호실에서 발인. △박준경 = 모친상. 11월 6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에서 발인. △박찬민 = 장남 광곤군 11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홀(2층)에서 결혼. △이성기 = 아들 태민군 11월 6일(일) 오전 11시 연세

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결혼. △이무환 = 모친상. 10월 10일 포항 제일 장례식장 301호에서 발인. △조용업 = 장녀 은영양 12월 10일(토) 오후 2시 대전 루이비스 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 △차평덕 = 장녀 혜경양 10월 29일(토) 오후 3시 서울 운현궁 노락당에서 결혼. △함주혁 = 장녀 동운양 12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홀에서 결혼.

<31회>

△공종열 = 차녀 수선 양 11월 20일(일) 오전 11시 30분 더S웨딩홀 컨벤션홀(부산 남구 전포동)에서 결혼. △양대석 = 딸 유진 양 10월 30일(일) 낮 12시 (서울)호텔 리베라 3층 몽블랑홀에서 결혼. △이경희 = 모친상. 11월 5일 진주중앙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에서 발인. △이훈 = 빙모상. 11월 9일 원광대산본병원 장례식장 3호 분향실에서 발인. △장평우 = 모친상. 9월 24일 부산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발인. △주정욱 = 딸 예원 양 10월 15일(토) 오후 5시 (서울)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결혼. △홍성수 = 빙모상. 11월 18일 영락공원장례식장 4호 분향실에서 발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병태(10회) = 10월 13일 작고
 △장성봉(10회) = 10월 22일 작고
 △강문상(11회) = 12월 3일 작고
 △천동조(11회) = 10월 21일 작고
 △김종의(13회) = 11월 17일 작고
 △이행부(13회) = 11월 9일 작고
 △임용수(13회) = 10월 27일 작고
 △정은섭(13회) = 11월 1일 작고
 △최부웅(13회) = 12월 5일 작고
 △한달웅(13회) = 11월 15일 작고
 △전재진(19회) = 11월 1일 작고
 △권해영(24회) = 10월 28일 작고
 △박해득(24회) = 11월 20일 작고
 △김형규(26회) = 9월 26일 작고
 △장인철(26회) = 11월 23일 작고
 △김정태(30회) = 10월 8일 작고
 △이성호(30회) = 10월 21일 작고

<42회>

△김중동 = 장녀 지원양 12월 3일(토) 오후 3시 부산가정성당2층에서 결혼.

<44회>

△안병규 = 부친상. 11월 16일 부산시민장례식장 특301호실에서 발인. △한수성 = 빙부상. 10월 27일 부산삼신전문장례식장 특203호실에서 발인.

동 정

박기용(16회) 이용흥(19회) 부산시문화상 수상



△2명의 원로동문이 지난 11월 16일 '제65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물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부문에서 9명의 수상을 배출했다.



박기용(16회·수영구 문화예술회 회장·사진 위) 동문이 인문과학 부문에서 수상했다. 박 동문은 동해에 관한 논문 작성과 강연 등을 통해 시민의 역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용흥(19회·㈜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회장) 총동창회 고문은 공간예술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고문은 평생을 건축설계 분야에 매진, 부산시청사 백스코 누리마루 등 부산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설계한 최정상급 설계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량부(17회), 동의학원 신임 이사장 선임

△동의대 총장을 역임한 정량부(17회) 동문이 지난 10월 27일 학교법인 동의학원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정 동문은 1979년부터 동의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거쳐 2010년 총장에 취임했다. 이후 2020년부터 동의학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 동문은 “출산을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지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단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운(39회), 롯데 2군 감독 선임

△롯데 자이언츠 1군 감독까지 지냈던 이종운(39회) 동문이 친정팀 2군 감독으로 최근 선임됐다.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 동아대를 거친 이 감독은 1989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데뷔했다. 은퇴 후 롯데 코치와 경남고 사령탑 등을 지낸 이 동문은 2015년 롯데 지휘봉을 잡았지만, 한 시즌을 끝으로 친정팀을 떠났다. 이후 SK 와이번스로 건너가 2019년부터 2년간 2군 감독을 지냈다. 이 동문은 신세계그룹 이마트 주최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 경남고 OB덕형 팀의 감독으로 활약했다.

이 동문은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오게 됐다. 구단에서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기쁘다.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기량을 꽃 피워 1군 무대로 올라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열(44회), 김일배 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경남고 야구부 감독 전광열(44회)

국가대표 최흥표(19회) 동문 별세

야구 국가대표 4번 타자로 활약했던 최흥표(19회) 동문이 지난 9월 17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경남고 재학 시절 야구부 외야수로 활약하다 졸업 후 실업팀 상업은행, 육군 야구부 등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제1회 하와이세계야구선수권대회(66년 8월) 등 국제대회에 5회 출전, 국위를 크게 선양한 동문이다. 최 동문은 최근까지 19회 동기회 및 산악회 총무를 15년간 맡아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

동문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수여하는 '김일배 지도자상' 수상자로 지난 11월 24일 선정되었다. 협회는 선정 이유로 정 동문이 1996



년 경남고 코치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지도자로 활동하며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경남고 감독으로서 소속팀을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으로 이끈 공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6시 서울가든호텔 '2022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에서 갖는다.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애아원 후원

경미회 사회공헌분과는 지난 12월 2일 오전 11시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교내에 소재한 애아원을 방문, 학습비 지원 명목으로 300만원 원을 전달했다(사진). 사회공헌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십시일반 분과원들의 정성을 모아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 김상수(45회) 사회공헌분과 위원장, 감기환(47회) 경미회 사무국장, 김현진(52회) 사회공헌분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2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 <총 2,353명> (2022. 11. 29 기준)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료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 7회 윤용우 2024년 임성국 2023년
- 11회 김광석 2024년, 이균우 2023년, 이세영 2025년
- 13회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이창열 2023년 제병민 2023년
- 14회 박남조 2026년, 신용진 이호근 2024년
- 15회 손부홍 2031년 윤상준 2025년
- 16회 민신웅 2023년
- 17회 이건우 이세복 2023년

- 18회 박종문 2023년, 홍우재 2024년
- 21회 육화원 2023년
- 23회 박재호 2028년
- 24회 구자웅 정윤상 2023년
- 25회 박명우 2024년, 임창운 2051년
- 26회 이상원 2030년
- 28회 구영소 박종기 2024년, 이종만 2023년, 하재근 2028년
- 29회 황유명 2023년
-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변윤수 서강태 2023년, 신교선 2025년

- 32회 최준호 2024년
- 33회 조덕환 2023년, 최웅남 2030년
- 34회 박철웅 2023년
- 35회 이효성 2023년
- 36회 김관용 2026년
- 37회 서동욱 2024년, 최기영 2025년, 허부남 2026년
- 38회 권두성 2029년, 김언규 2024년
- 40회 박훈재 2025년, 문형욱 한수열 2023년
- 43회 김대영 2024년, 최용석 2023년
- 45회 김진수 박종호 최재영 2023년

- 46회 오영훈 이동수 2023년
- 48회 김춘호 2023년
- 49회 장민건 2023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 53회 백홍상 황종민 2023년
- 54회 엄도용 2024년
- 58회 김현운 2023년
- 66회 성범석 2023년
- 69회 정민기 2023년

- 3회(4명) 송두호 윤태운 이안규 하덕모
- 4회(5명) 김희수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 5회(8명)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상기중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 6회(12명) 강동숙 김종철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유상환 이희문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 7회(15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태배 노해규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국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 8회(14명) 김봉길 김상식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 9회(13명) 김기관 김 청 김태영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윤일명 안규현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정해돈 지삼봉

- 10회(32명) 강희운 김기호 김상규 김선동 김정학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윤수 이재순 이경호 임경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형백 하영수

- 11회(52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상진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인호 김태호 김학수 김항근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창순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윤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경광 유홍중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경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덕호 최성욱 최창욱

- 12회(62명) 강본순 강수현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훈호 문준화 박민기 박상도A 박영운 박정운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석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승태 이용언 이원우 이현달 임상원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시전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관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 13회(80명) 강종원 고승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호 김일수 김정균 김경일 김중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경운 서서주 서영웅 성정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호 이상문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성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 14회(57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우웅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형수 김희욱 노수덕 류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정훈 배중현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현영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진성태 최남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 15회(61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연훈 김옥규 김만식 김종태 김종한 김중광 김홍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성훈 배 훈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휘경 이상호 이수명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최우조 조규중 천신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도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중부

- 16회(67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용 김박일 김상호 김영우 김영일 김홍진 김일규 김정호 김 조 김종덕 김창희 김충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종봉 박 흥 방수근 배정희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철원 임승언 정우광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랑 황규호

- 17회(57명)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상천 김용규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남 남궁성은 박기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 구 박 찬 박홍식 서경순 손성근 송유근 송 인문 송인창 신홍규 안국경 양성일 어윤대 오충환 윤성욱 윤수성 이건우 이세복 이수원

-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응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조종언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행

- 18회(64명)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사권 김성건 김재창 김중철 김지호 류중우 문재빈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중구 박종문 박준성 서부원 서재봉 서중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오수명 우원호 윤동수 이공희 이영범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철 허만조 허영태 홍우재 황관건

- 19회(80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우 김영택 김영태 김윤기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 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심영섭 심재구 안 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양환 이용주 이용홍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훈 이창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용식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황태경 황태원

- 20회(52명) 강부덕 손춘수 백완균 남기석 임세호 심두수 최창하 허남균 민영기 목일진 박용덕 조운태 김화식 조영철 강석근 김성룡 조성창 김원철 백창열 차용환 박 준 김형오 김세준 최명호 윤우성 최석립 전일준 문성채 김일석 배준태 신원기 유근준 이영오 최상인 정세현 박지오 장상배 김한원 김두영 장준식 안재상 문시영 김종민 김조남 남경열 강기철 이실근 김원갑 최중경 양태운 김우홍 오경석

- 21회(80명)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용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상덕 김영삼 김원일 김우건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기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성경근 신태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익희 오태규 육화원 이명환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술 장영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화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 22회(72명) 강호일 고인준 구자룡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A 김승규 김우 훈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철현 김 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모 박승목 박언표 박재상 박창섭 박홍조 배병한 배준식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윤 유인조 윤동원 이경상 이민성 이웅규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강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일 최영택 최완식 최학봉 하성일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 23회(74명) 김인홍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근 김정욱 김우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명욱 박기홍 박동현 박수갑 박인권 박재호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영준 송홍순 신경재 신언극 안경섭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기호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영훈 이윤석 이원일 이정욱 이준석 이충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재홍 정기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 24회(89명) 강동우 강용중 강청흠 광두희 구분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승택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극제 박맹렬 박윤성 박찬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렬 서경철 손찬호 신창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운 정명근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권립 진병진 차동렬 차현영 최동우 최승국 최원주 최현규 태창업 하재갑 한상열 허구연 황성동 황성훈 한태운

- 25회(130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경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연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범 김우형 김우환 김익수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종윤 김종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노태호 노재문 박거환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맹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용영 박인동 박종기 박중찬 박진국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성웅 이승욱 이신화 이인규 이창환
 이태근 이태식 이홍성 임영대 임창운 장대락
 장세훈 전섭태 정신배 정재복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의 조판계 좌상봉
 주재길 차인환 최병주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정 한준석 허만탁
 허영형 허택 황근태 황호선

26회(80명)

강수남 강영병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영섭 김주영
 김일광 김재용 김경무 김정원 김중우 김주병
 김재영 김태년 김택영 김 행 김호용 민창현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욱 백문현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상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유상 이정근 이주형 이상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욱 정영륜 차익고 정재영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차인식 최낙준
 최명해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청근 황광수

27회(49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성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중하 김지연 김지현
 김진영 김학희 김홍균 문두찬 박규우 박춘규
 박치호 배호택 변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하원
 오봉인 윤종락 이민부 이상득 이요섭 이종경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최인성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6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김홍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윤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재홍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영희
 이용남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흥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선국 전진화 정두현 정백수
 정영우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
 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
 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74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상규 김 영
 김영훈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중권 김중우
 김철오 김태완 문명환 문창건 박근익 박근우
 박동일 박동홍 박영섭 박봉구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변종만 사공운
 근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신현수 안
 청홍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정운 이준환
 이진욱 이종원 임상훈 장현경 전창화 정 길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영열 황맹근 황유명

30회(79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재일 김진영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노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석희원 신교선
 신규근 신원선 신인기 심봉수 양문섭 옥우전
 유재일 윤인태 윤중순 심현수 이명건 이영구
 이성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채화 정태환 정해석 조재성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 욱 최진근 최권관 하규양
 황철민

31회(68명)

강대석 고영호 공중렬 곽중철 권해철 김광수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중규 김중호A 김태
 근 김판덕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
 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용현 박인정 박준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서태교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최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창호 최보영 최상용 최인목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홍 구 홍성수

32회(38명)

강기상 광영섭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류현희 민길식 박성철 박우상
 박원근 박종구 박진원 신국선 신한국 양문성
 엄호선 예동해 오경명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상훈 이재수 이종휘 이환용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영철 정용문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허수철

33회(50명)

고창성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병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계선 김종만 김중인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호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규 이형근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영남
 최환호 황경원

34회(29명)

강승기 박수근 김두섭 김상갑 김태하 김화봉
 노인선 박기훈 박철웅 옥재명 윤성부 이강희
 이상운 이성업 이영희 이재완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35회(31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김홍근
 나동욱 도창호 류인수 박동렬 박항석 백현성
 백현호 서석권 성규원 손재수 안중엽 안종일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성환 이춘기
 이현수 이효성 장인화 정윤성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53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B 김정현 김중백 김중
 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박
 승근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양성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근 이상준 이석호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정창규 제갈재
 환 지동섭 최덕희 최상도 최재혁 최태섭 한
 형식

37회(35명)

강태우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의렬
 김경수 김중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기섭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천웅찬 최기영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37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근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언규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백승은 심 찬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양배 이창호 이태훈 정민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최휴경
 한민득

39회(56명)

곽기영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경남 김중엽 김천술 김형보 남호찬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안승진 안영준 엄일규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종욱 이종운 이준영 이철원 이태운 장민훈
 장영욱 장윤혁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경우영
 정의창 정진해 조용섭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40회(27명)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춘강 문형욱 박근성
 박무성 박재현 박준재 배병훈 서정민 손균효
 심 철 안성호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용석 최치언

41회(35명)

강병오 강석희 강 훈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경의 백선민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윤성보
 윤성환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이형석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하범중 한정호 한창희 허중운 황정후

42회(24명)

강인호 고장석 곽창우 김광철 김동수 김순곤
 김원주 김재용 김태구 김현오 남화정 문지성
 박기열 박동식 성창욱 신동복 신봉준 안정일
 윤영기 이영도 정용중 정홍준 제경환 조명준

43회(27명)

강병규 강택용 고두병 구명진 김대영 김동현
 김신현 김중식 김진수 김태형 김희경 문기덕
 문영찬 박경근 박형규 백성운 윤성진 이상현
 이성춘 이용상 이정열 이진배 정호범 최동환
 최용석 최한림 허재원

44회(22명)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형모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안성만 윤철홍 이도령 이병희
 이승철 이창용 전광열 조영호 조진현 진성재
 탁경환 한수성 허태욱 황인주

45회(41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용성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현호 박 웅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왕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정상희 정중훈 조창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5명)

강남구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권태윤
 김경수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철홍 김태영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송영주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영훈
 윤성근 이경승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11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배준수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정 신 정민호

48회(9명)

권태현 김정훈 김중철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8명)

김태훈 박시원 신종국 이충현 장민건 정일권

조영철 최유탄 최진영

50회(23명)

강병규 강 철 구원모 김동현 김석훈 김유진
 김재용 김재호 김정현 남경협 박종현 백승현
 안기범 윤중선 이상준 장태호 전세계 경재우
 정희석 차승준 최용호 하진일 황현후

51회(14명)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태 박보순 반길호
 신혁휴 신현식 유상일 이 덕 이지모 경유석
 정진우 최우영

52회(23명)

강영철 김민수 김민철 김상근 김지운 김현진
 박상현 박선종 백선명 변의현 유중갑 이경원
 이도경 이현황 이형재 임치훈 장태원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1명)

강덕천 김원준 김상욱 문희규 백홍상 송승운
 송승준 이원준 이진수 한동인 황종민

54회(10명)

강치범 고지현 김성택 김태규 석강훈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조중완

55회(73명)

강경동 강문성 고윤성 권세호 김대성 김대진
 김동현 김민성 김정현 김태련 김태현 김팔경
 김현달 김현중 김형식 박기홍 박다니엘 박두근
 박상일 박신현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변주환
 서진우 송정환 신동현 신민걸 신용국 안준형
 안진영 양세동 윤승환 이대호 이도경 이동규
 이동욱 이동주 이동현 이문원 이영훈 이육한
 이종원 이해민 이항림 임인철 장 민 강병후
 장지훈 장현준 전대근 전민기 정균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제갈문 조윤호 조재영 조중호
 조현민 최범준 최상국 최성원 최유성 최익제
 최지훈 최 흔 하치수 한재호 허 준 황보영
 황시우

56회(2명) 임동섭 장재환

58회(1명) 김현운

59회(1명) 김성수

60회(2명) 유영재 이명휘

64회(1명) 표종민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3명) 권성민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7명

2022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2년 11월 29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7	52	78%	39	68	56	82%
2	0	0	0%	21	106	80	75%	40	50	27	54%
3	5	4	80%	22	96	72	75%	41	60	35	58%
4	6	5	83%	23	95	74	78%	42	39	24	62%
5	11	8	73%	24	118	89	75%	43	71	27	38%
6	20	12	60%	25	192	130	68%	44	50	22	44%
7	21	15	71%	26	109	80	73%	45	55	41	75%
8	23	14	61%	27	81	49	60%	46	38	35	92%
9	24	13	54%	28	90	76	84%	47	37	11	30%
10	43	32	74%	29	117	74	63%	48	12	9	75%
11	61	52	85%	30	115	79	69%	49	33	9	27%
12	75	62	83%	31	90	68	76%	50	57	23	40%
13	91	80	88%	32	51	38	75%	51	106	14	13%
14	68	57	84%	33	64	50	78%	52	135	23	17%
15	75	61	81%	34	38	29	76%	53	43	11	26%
16	82	67	82%	35	55	31	56%	54	90	11	12%
17	61	57	93%	36	66	53	80%	55	73	73	100%
18	92	63	68%	37	43	35	81%	56	11	2	18%
19	100	80	80%	38	51	37	73%	57이후	35	15	43%
Sub-total(1)		682명		Sub-total(2)		1,196명		Sub-total(3)		468명	
미상		7명		목표인원		4,000명		구독료납부인원		2,353명	
총발송부수		3,565명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는 모교와 동문 사랑의 출발점
 동창회보 구독료는 경남중고인(사)의 자긍심입니다!!"



야구후원회장 유재진(22회)

동문 여러분

지난 1월 26일 재창립 정기총회 이후
성황을 이룬 후원회원 모집과
더불어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우승은 눈시울을 적셨던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소중한 야구 후원금은 전통의
전국 제일 야구 명문을 잇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야구 사랑이 깊어지는
계묘년 새해가 기다려집니다.



후원회 조직표

2022. 12. 1 기준

고문	21구본능								
회장	22유재진								
수석부회장	25박종찬								
특별회원(18명)	9이 용	15손부홍	16이우재	16조길우	17김백수	17배재욱	17이수창	18김길제	19이훈만
	19임우근	19장홍의	21강수경	21강창수	21안채식	23정갑윤	24이명규	25박명우	25서병수
부회장(53명) [연 120만원 이상]	16송규정	20박용덕	24변용준	24허구연	25김진철	26박상호	28백영호	28김용희	29김대욱
	29이문열	30윤성덕	30박경태	31오민일	32이종휘	33박명진	34이진호	34이성엽	35장인화
	35백현성	36박진용	37허부남	38권두성	38조용철	38정재형	39박근태	39정순환	40우영환
	41김경태	41최영준	42정용중	43강병규	44강경호	44김 황	44배봉건	44안병규	44윤상훈
	44임정훈	44탁정환	45구자삼	45김상수	46최원석	47정 신	48유성한	50정재우	51김동주
	51최우영	52김민철	52서정수	53김권우	53송승준	53이상훈	54조종환	55전민기	
정회원(187명) [연 12만원 이상]	22김명환	22김원우	22김진영	22김학균	22장성덕	22장성복	23김기열	24곽두희	24김도현
	24노상우	24태창업	25김길수	25김종현	25박광용	25옥동훈	25이명철	25제영성	26김두천
	26이영학	26조만석	27이요섭	28박종기	28안 풍	29김종명	29사공윤근	29이범익	29이충원
	30정경목	31김종규	32예동해	32이성훈	32임형택	32정용운	33김윤성	33박상국	33백수현
	33이동근	33이윤조	33이형근	33최용남	34전재병	35김재성	36김창일	36임창섭	36정윤희
	36최성필	37김동운	37김형기	37이수환	38구동주	38김경곤	38김연규	38김태호	38김현민
	38문귀상	38박이현	38박경민	38신동훈	38윤경만	38이수관	38임성빈	38조수용	38한민득
	39김종업	39박종국	39백기현	39윤원욱	40배병훈	40임태영	41강 훈	41김성일	41김영철
	41류지섭	41윤형배	41이양걸	41전삼록	42김현오	42박광용	42문지성	43김대영	43김신현
	43김중식	43이상현	43정창석	44김성준	44김성훈	44문형준	44정종윤	44조상화	44최주섭
	44최 현	44한수성	45권우일	45손창호	45조청래	45진상영	46김백권	46서승진	46신정일
	46이재광	47김기환	47강백중	47김동휘	47배준수	47서정민	47손효준	47윤필호	47이 일
	47장순재	47정기주	47정민호	47정윤호	47정준홍	47조덕만	47차기혁	47최경훈	47최원창
	48박선용	48임경환	48손인호	49신종국	50강봉규	50김동현	51구민석	51박보순	51신승환
	51신현식	51안승훈	51오건진	51이건영	51이경우	51임용관	51정유석	51최한석	52김민수
	52김현진	52최문성	52한중현	52허근영	53김경남	53김경찬	53김상욱	54고지현	54김대진
	54김영민	54김태완	54서경호	54이동하	54임길환	55강문성	55고윤성	55권세호	55김태현
	55김현달	55김현중	55박기홍	55박정민	55박찬우	55백광일	55이동규	55이동욱	55이동주
	55이욱한	55장지훈	55최범준	55최성원	55최유성	55최익제	55허 준	55황보영	55황시우
	56심세준	56장재환	58박찬영	58오웅경	58전성기	58주재형	59김성수	60김현우	60김현중
	60유영재	60최규환	61김재용	62이재곤	62신본기	62한 민	74최준용		

총 261명

경남고 야구 선수단

성명	학년	포지션	신장	몸무게	투타	성명	학년	포지션	신장	몸무게	투타
1 권진혁	3	투수	185	83	우우	39 권영인	1	투수	187	78	우우
2 김건우	3	투수	176	80	좌좌	40 서희진	1	투수	180	77	우우
3 김우혁	3	투수	190	100	우우	41 조지훈	1	투수	182	80	우우
4 김현우	3	투수	189	86	우우	42 차유주	1	투수	184	75	좌좌
5 나윤호	3	투수	180	78	우우	43 최강우	1	투수	177	80	우좌
6 윤준빈	3	투수	187	96	우우	44 장찬희	1	투수	182	74	우우
7 이서율	3	투수	186	87	우우	45 문성빈	1	투수	183	83	우우
8 신민우	3	투수	180	78	우우	46 배경민	1	투수	195	87	우우
9 최이한	3	투수	180	84	좌좌	47 박태현	1	투수	185	90	우우
10 박민규	3	포수	181	81	우우	48 신상연	1	투수	180	74	우우
11 이희성	3	포수	181	90	우우	49 조원우	1	투수	180	78	좌좌
12 강병욱	3	내야수	177	75	우우	50 정문혁	1	포수	185	85	우우
13 이영운	3	내야수	181	72	우우	51 윤지우	1	포수	178	77	우우
14 박준하	3	내야수	180	88	우우	52 오지성	1	내야수	183	82	우우
15 정재윤	3	내야수	173	73	우우	53 조동욱	1	내야수	175	70	우우
16 최태원	3	내야수	183	82	우우	54 유진준	1	내야수	178	73	우우
17 이영서	3	외야수	180	88	좌좌	55 이지민	1	내야수	173	70	우좌
18 송준영	3	외야수	184	105	좌좌	56 김준안	1	내야수	178	86	좌좌
19 조세익	3	외야수	182	78	좌좌	57 신지우	1	내야수	183	75	우우
20 김근희	2	투수	192	93	우우	58 박재윤	1	외야수	176	65	우우
21 김동욱	2	투수	185	87	우우	59 김형진	1	외야수	175	68	우우
22 김 완	2	투수	183	87	좌좌						
23 김태균	2	투수	190	92	우우						
24 박시원	2	투수	192	85	우우						
25 서연우	2	투수	187	87	우우						
26 윤재현	2	투수	177	65	우우						
27 조현진	2	투수	183	74	우우						
28 진석현	2	투수	193	98	좌좌						
29 천지홍	2	포수	179	89	우우						
30 강도현	2	내야수	183	90	우우						
31 박현준	2	내야수	187	87	우우						
32 이승환	2	내야수	175	70	우우						
33 최준영	2	내야수	175	73	우우						
34 최지훈	2	내야수	175	73	우좌						
35 박현서	2	외야수	182	73	좌좌						
36 양휘민	2	외야수	180	87	우좌						
37 정은성	2	외야수	174	70	우우						
38 주양준	2	외야수	188	82	우우						

감독 전광열(44)
코치 박현승(45) 코치 정수찬(46)
코치 류은재(56) 코치 정규창(62)

회원가입 : 1인 1구좌
1만원(매월)
12만원(매년)



경남중·고등학교 야구후원회

후원회 사무소 : 총동창회관 406호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77- 988602] 유재진 (법인설립시 추후 변경예정)

